조선을 이끌어 70년



조선을 이끌어 70년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4(2015)년

머리말

1945년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창건을 선포한 조선로동당은 만난시련속에서 력사적인 건국위업을 실현하였으며 거창한 민주개혁의 실시로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들에게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를 안겨주었다.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전쟁에서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세계가 력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승을 안아왔다.

전후 조선로동당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던 조선에 14년만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7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그 어떤 로선상착오나 우여곡절도 없이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해결해나가고있으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차 례

조선로동당 창건, 새조선 건설

당창건의 토대축성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조선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5(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부터였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력다툼과 파쟁,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주체15(1926)년 10월 17일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타도할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타도제국주의동맹 (략칭《ㅌ.ㄷ》)의 강령은 회의참가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내세운 활동원칙은 자주성의 원칙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새 세대 혁명가들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

조직이였으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에서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화전의 수수한 온돌방에서

화성의숙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주체14(1925)년초에 세운 2년제 군사정치학교이다.

중국의 길림성 화전현 화전에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사상에 물젖은 선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방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것을 깨달으시고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해방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품으시고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로써 《공산당선언》과 같은 도서들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시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립장을 통일시키시였으며 이때부터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얻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결속된 동지들로 혁명조직을 무을것을 결심하시였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 드디여 혁명조직을 결성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열변을 토하며 전투적인 언약을 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훌륭한 토론들을 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ㅌ.ㄷ》성원들은 손에손을 잡고 한덩어리가 되여 휘발하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ㅌ.ㄷ》의 강령은 앞으로 창건될 조선로동당강령의 기초로 되였고《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혁명가들은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는《ㅌ. ㄷ》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새형의 당을 창건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시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신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부터였다.

조선에서 공산당이 조직된것은 1925년 4월이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1928년 여름에 있은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실 결심을 굳히시였다.

《ㅌ.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1930년 카륜회의에 이르는 기간 혁명의 지도사상과 혁명로선, 당창건방침이 제시되였다. 혁명의 지도핵심이 마련되고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여러 혁명조직들이 무어졌다.

이 모든것은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토대하여 주체19(1930)년 7월 3일 중국 길림성 장춘현의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첫 당조직성원으로 되였다.

첫 당조직은 조선로동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성원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면서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첫 당조직의 명칭은 건설동지사였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 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있었다.

주체19(1930)년 7월 건설동지사의 사상적대변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출판물로서 잡지 《볼쉐비크》가 창간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주체19(1930)년 10월에는 조선의 온성지구에 국내 첫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그후 짧은 기간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기층당조직이 나오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체계가 세워졌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당창건준비 완성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았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였으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대오와 유격구들에 각급 당조직들이 결성되고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당단체들이 광범히 조직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3(1934)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위와 사명, 각급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을 밝히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여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모두 장악지도하는 통일적지도기관, 최고령도기관으로서 항일무장투쟁과 당창건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반일대중투쟁 등을 이끌어나갈 조선혁명의 참모부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위로 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이 선포되였다.

새로운 당조직구조에서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표대회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안에는 상무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상무위원회는 간부사업과 당규률, 당면한 군사정치활동, 부대관리, 지하공작 등 당내부사업과 전반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군정간부회의,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매 시기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적문제들, 군사전략과 작전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그 관철에로 각급 당조직들과 혁명

조직들,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에 열린 남호두회의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주체25(1936)년 12월 당조직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한 지역적당지도기관인 국내당공작위원회가 나옴으로써 전국도처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5(1936)년 5월 조선에서의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것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2(1943)년 2월 함경북도 무산군 연사면 우적골에서 있은 전국 당조직책임자 및 당핵심성원회의에서 남호두회의 이후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총화하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박두한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창건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적골회의를 계기로 국내의 보다 넓은 지역 특히 중요산업지대와 전략적요충지들, 남부조선일대를 비롯하여 아직 당력량이 약하게 미치고있던 지역들에 당조직들이 나왔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짐에 따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하고 조국해방(1945.8.15.)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국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새 조국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당을 창건하는 길에는 커다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그것은 주로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관련되여있었다.

1945년 8월 15일 밤 서울 장안빌딩에서는 여러 갈래의 몇몇 종파분자들이 모여 하루밤사이에 《당》을 조작하였다.

같은 날 밤 서울 창신동에서는 엠엘파의 일부 분자들이《공산주의자협의회》를 열고 《공산당 서울시당부》를 조작하였다.

북조선에서도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이 지방당단체들에서 자기들의 종파적지반을 닦으려고 획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의 북과 남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주체34(1945)년 8월 통일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혁명가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

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망라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이 방침에 따라 각지에서 당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그에 토대하여 당중앙지도기관을 내오는 문제가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신데 기초하여 주체34(1945)년 10월 5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주체34(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북조선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들 70여명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외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상세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밝히시고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대회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제의를 지지찬동하였으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대회는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당을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정당으로 만들며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인 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조직로선을 채택하였다.

당창건사적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에 계시면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사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관이다.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당창건사적관은 해방직후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사업하던 청사에 꾸려졌다.

2층으로 된 사적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며 사업하시던 2개의 집무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본래의 모습대로 꾸려져있으며 당창건사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된 여러개의 진렬실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사업하시던 집무실들은 그이께서 리용하시던 나무로 만든 보통책상과 의자들로 매우 검소하게 꾸려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당창건을 준비하시였고 당을 창건하신 후에는 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시였다.

또한 중요회의들의 보고문들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실시를 위한 법령초안들을 준비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찾아오는 북과 남의 수많은 인사들과 로동자, 농민들도 여기에서 만나시였다.

또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는것을 당의 기본정치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4대당면과업을 밝히였으며 북조선을 강력한 민주주의적기지로 만들데 대한 당의 정치로선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탄생하게 되였다.

이로써 《ㅌ. 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새 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

정치로선, 조직로선 관철

당이 창건된 후에도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은 여전히 계속되였다.

특히 당의 정치로선을 반대하여나선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집요하였다.

주체34(1945)년 11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건설문제와 함께 정권문제, 대중단체조직과 통일전선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정치로선관철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정치로선을 반대하는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의 정치로선에 기초하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당의 정치로선을 더는 정면으로 반대해나서지 못하였다.

주체34(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기초하여 각급 당조직

들의 사업에서의 성과와 결함, 특히 조직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당건설과 조직정치사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안에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고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당중앙지도기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체 당원들의 일치한 의사에 의하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지시를 어기고 당규률을 위반한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날카롭게 비판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34(1945)년말부터 주체35(1946)년초까지 유일당원증교부사업과 당원심사사업을 전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당안에 기여들었던 불순분자들을 제거하고 당대렬을 정비하였다.

한편 로동자, 빈고농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당원총수가 주체35(1946)년 4월 20일 현재 2만 6 000여명으로 장성하였다.

주체35(1946)년 2월에 진행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는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결정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계속 위반하는 종파분자들을 엄격히 취급하고 조직적으로 제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연한 조직지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게 되였다.

당과 대중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속에서 령도적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조직사업을 동시에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은 청년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노는 역할로부터 그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에 묶어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해방직후 공청, 해방청년동맹, 애국청년동맹, 건국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동맹, 농민청년동맹, 그리스도교청년회, 백의청년동맹 등 각이한 명칭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제각기 조직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고 각계각층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주체34(1945)년 10월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대중적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10월말에 진행된 민주청년열성자대회에서는 민청의 강령과 규약,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보내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34(1945)년말까지 전국의 도, 시, 군, 면들에 민청단체들이 조직되고 여기에 여러 청년단체들이 통합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단체 대표자회에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을 선포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청년조직으로서 당의 령도밑에 활동하는 청년들의 유일한 정치조직이였다.

당은 또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대중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주체34(1945)년 11월에 북조선민주녀성동맹과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이 결성되고 주체35(1946)년 1월에는 북조선농민조합련맹이 결성되였다.

이와 함께 북조선공업기술총련맹, 북조선예술총련맹, 북조선기자동맹, 북조선불교도련맹,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 등 사회단체들도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당의 두리에 결속되게 되였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7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가 결성되고 뒤이어 도, 시, 군에 각급 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애국력량이 민주주의기치밑에 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였다.

당과 민주개혁

당은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지위를 확립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였다.

당은 전당을 토지개혁수행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농촌에 조직된 1만 1 500여개의 농촌위원회와 1만여명의 선진적인 로동자들로 조직된 토지개혁지원대에서 당원들이 로동자, 빈농, 고농들을 이끌어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중단체들을 토지개혁사업에 옳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였다.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행되였다. 한편 당은 로동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법령을 발포하고 사회경제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당은 민주개혁과 같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실천속에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창건된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령도적지위를 확립하고 그 어떤 과업도 능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당으로 자라났다.

토지개혁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5정보이상의 땅을 가지고 소작주면서 놀고먹던자들을 지주로 규정하고 지주들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있던 땅과 부림소, 농기구,살림집, 관개시설을 비롯한 전체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당의 이 방침은 4만 4 000호의 지주를 청산하여 72만여호의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방침이였다.

지주가운데서 거의 20%나 되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땅만 몰수하도록 하였다.

땅을 내놓고 반항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에 옮겨놓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반항하는 지주는 인민의 적으로서 엄격한 제재를 받았다.

북조선로동당

해방후 조선에 준비된 혁명가들이 많지 못한 실정에서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력량을 빨리 확대강화할수 없었다.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당시 근로자들을 망라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절실한 문제였다. 북조선에는 신민당이, 남조선에는 인민당과 신민당이 조직되여있었다. 여러 근로자당의 존재는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였다. 북조선에서 신민당은 공산당에 맞서 당세를 확장하였으며 남조선에서도 종파분자들이 근로자당들사이의 대립을 격화시켜 대중을 분렬시키고있었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은 변화된 사회계급관계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북조선에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확고해지고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의 동맹이 강화되였으며 그들이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리해관계를 같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남북조선공산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근로대중의 대중적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남조선의 정세가 다르고 투쟁임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는 사업은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각기 따로따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합당방침에 따라 북조선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량

당 중앙위원회 련석회의에 제기할 보고와 합당선언서, 합당후 당의 명칭과 강령, 규약초안, 지도기관선거세칙 등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당을 합당하여 창립하려는 당의 명칭을 로동당으로 하는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육체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과 정신로동을 하는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당의 대중적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여있었다.

주체35(1946)년 8월 평양에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보고《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에서 로동당의 성격과 기본임무, 투쟁과업을 밝히시였다.

대회는 로동당의 창립을 선포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북조선로동당기관지《로동신문》과 정치리론잡지《근로자》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붓으로 형상된 당마크가 제정되고 이 당마크가 당기발에 새겨지게 되였다.

당과 정규적혁명무력

미제는 북조선에서의 민주기지건설을 파탄시키며 남조선을 대륙침략전쟁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5년 11월에《군정청》안에《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괴뢰군의 모체로 될《국방경비대》를 내왔다. 그리고 도처에 군사시설물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정규무력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규무력창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정규무력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파견하시여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정규무력건설에서 군사정치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인 힘이 돌려졌다. 새 조국건설 특히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낼 사명을 지닌 평양학원이 창립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 중앙보안간부학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7월에는 평양학원에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따로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평양학원에 항공반이 증설되였으며 주체36(1947) 년 7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가 창립되였다.

정규적혁명무력의 핵심부대들을 창설하며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종, 병종부대들을 새로 조직하는데 큰 힘이 돌려졌다.

당은 주체35(1946)년 9월초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력량과 평양학원에서 키워낸 군사정치지휘관들을 핵심으로 보안간부훈련소들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공군과 해군도 빠른 시일안에 창설되였다.

주체36(1947)년 8월 조선의 첫 비행대가 조직되였다.

주체35(1946)년 6월에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여 현대적해군무력창설의 토대도 마련되였다.

이와 함께 포병, 통신병, 공병 등 여러 병종부대들이 조직되였다.

당은 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힘썼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초 평양시 평천리에 있는 병기제조소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정규무력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군인들을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6(1947)년 6월 조선의 첫 병기공

장이 일떠서고 여러가지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생산해내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당의 건군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제반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인민경제의 부흥발전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이 강화되였다. 그러나 반면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악랄한 민족분렬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제는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다.

유엔총회에서 미제는 조선인민의 대표도 참가시키지 않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감시밑에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의》를 꾸며냈다.

이 《결의》가 전체 조선인민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을 받게 되자 미제는 1948년 2월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유엔의 감시밑에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더욱 짙어졌다.

이러한 때인 주체37(1948)년 3월 평양에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결론에서 당창건 후 당이 진행하여온 전반사업을 총화하시였으며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방침과 북조선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당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적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 중앙정권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2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창립되였다.

다음해에는 립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의 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되였다.

주체37(1948)년 4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여시고 남조선단독선거를 짓부시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대책들을 세우시였다.

대동강의 쑥섬에서 있은 남북련석회의 지도부성원들의 협의회에서는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하여 협의확정하였다.

주체37(1948)년 6월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는 남조선단독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다음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조선대표들로 중앙정부를 세울것을 결정하였다.

당은 협의회이후 전체 조선인민을 남북총선거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주체37(1948)년 8월 북남조선 전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북조선에서 212명, 남조선에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거되였다.

남북총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9월 2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공화국의 정부를 조직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북남로동당 합당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이 조작되였다.

미제의 사촉밑에 리승만괴뢰도당은《반공》을《국시》로 내세우고 애국적민주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출판보도기관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 특히 남로당 당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적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남

로당조직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적지 않은 당조직들이 파괴되였다.

남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박헌영도당의 해독행위도 더욱 악랄해졌다. 이자들은 당장성사업을 무원칙하게 하여 당안에 많은 불순이색분자들이 기여들게 하였다.

또한 무모한 폭동을 조직하여 당조직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1948년 10월에는 려수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군인폭동을 일으켜 《국방군》안의 혁명력량까지 다 말아먹었다.

남조선에서 전면적파괴상태에 빠진 당조직을 수습하고 혁명력량을 보존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는 남조선당단체들에 대한 령도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였다.

북남조선로동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체37(1948)년 8월 북남조선로동당 련합중앙지도기관이 결성되였다.

이듬해 5월말 북남조선로동당 련합중앙지도기관회의에서는 남북조선로동당 합당준비사업계획을 토의결정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합당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에 토대하여 주체38(1949)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사이에 진행된 북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련합전원회의에서는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을 단일한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들이 하나의 유일한 중앙위원회로 련합되고 이미 존재하던 련합중앙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로 개편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국해방전쟁과 조선로동당

70

전시환경에 맞게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불의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군대가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6일 방송연설《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전쟁승리를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6월 26일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국가 및 군사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낼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에서는 당사업을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모든 초소들에서 당조직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짧은 기간에 모든 사업이 전시체제로 개편되고 당의 모든 활동이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복종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함께 전쟁의 전반적행정에 대한 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되고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든 당원들이 전투마다에서 앞장섰기때문이였다.

서울해방작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명령을 받들고 반공격에로 넘어간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공화국북반부에 깊이 침공해들어왔던 적들을 격멸구축하면서 작전개시후 2일동안에 배천, 옹진, 개성, 의정부 등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312호땅크를 비롯한 5대의 땅크와 기계화보병구분대로 편성된 소부대는 6월 27일 오후에 행동을 개시하여 6월 28일 새벽 2시에 미아리고개(서울 동북쪽 10㎞지점)를 넘어 적의 후방인 경복궁에 진출하였고 기계화보병구분대는 동대문경찰서를 점령하고 애국자들을 석방하였으며 괴뢰《중앙청》과《방송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땅크부대들과의 협동밑에 진행하였다.

제9땅크려단은 동대문구역에 돌입하여 저항하는 적들을 소멸하고 주요대상물을 점령하였으며 제3보병사단은 청량리일대의 적을 소멸하고 서울동쪽과 남쪽지역을 해방하였다.

한편 제4보병사단도 공격으로 넘어가 서울시가에 돌입하여 적을 소멸하였다.

괴뢰수도사단을 비롯한 6개의 괴뢰사단들과 헌병대 등으로 진행한 서울방어는 붕괴되고 괴뢰《중앙청》지붕우에는 공화국기발이 나붓겼다.

전쟁이 개시되여 3일만인 6월 28일 11시 30분에 서울은 완전히 해방되였다.

서울해방작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적 2만 1천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각종 포, 저격무기, 땅크, 자동차, 비행기 등 수많은 전투기재들을 파괴로획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시 당정치사업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군사위원회명령관철을 위한 사업에로 총집중시키도록 하였다.

모든 당사업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군사위원회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지향되고 당조직들이 전시환경의 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조직위원회를 내오고 기층당조직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회의를 기동적으로 하며 대중교양사업과 정치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인민군대에서는 전선지휘기관들에 군사위원회제도를 내오고 군

가렬한 전시환경에서

전쟁이 가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조선에서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국가치료예방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및 약값을 무상으로 하게 되였다. 그리고 국가외래치료예방기관의 치료를 무상으로 하며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대상자와 국가기관, 협동 및 사회단체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부양가족과 전재민구호대상자 및 특수한 환자들에 대한 약값도 무상으로 하게 되였다. 이렇게 누구나 돈한푼 내지 않고 치료받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가렬한 전시환경에서 마련되여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사위원들을 파견하였다. 군사위원들은 당과 정부의 대표로서 군인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부대, 련합부대들에서 최고사령부의 전략작전적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며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는 임무를 담당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수많은 군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가렬한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전선사령부의 한 일군에게 전선에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화선입당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범전투원들을 전투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당에 받아들이는것을 전시 군대의 중요한 당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화선입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싸우는 전선의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화선입당에 고무된 전선의 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 바쳐싸울 맹세를 담아 저저마다 입당청원서를 써놓고 결전장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수많은 군인들이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 나날에 당대렬의 질적구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당정치사업이 강화되여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인민군대안에 조선로동당단체를

전쟁초시기만하여도 인민군대안에는 군관학교와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당단체가 없었으며 문화부가 군인들에 대한 문화교양사업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대의 문화부일군들과 군사

위원들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지만 당단체가 없은것으로 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안에 조선로동당단체를 내오고 정치기관을 조직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총정치국으로, 각급 문화부들이 정치부로 개편되였으며 정치부 부대장, 정치부 구분대장 직제가 나오고 모든 인민군부대들에 중대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구분대로부터 부대, 련합부대, 민족보위성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의 전반적단위들에 당조직이 조직됨으로써 모든 군인당원들이 당조직에 소속되고 군대안의 당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조직지도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세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주체39(1950)년 12월말에 이르러 인민군대는 미제의《크리스마스총공세》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기도하고있는 미제에 의하여 전쟁은 장기화될 징조를 띠게 되였다.

한편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일부 조성되였던 무규률성이

완전히 가셔지지 못했고 후방형편도 몹시 어려웠다.

조성된 전반적군사정치정세와 당내형편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불가피하게 조성되였던 혼란을 시급히 수습하고 당, 국가 및 군대안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출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실 구상밑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시였다.

주체39(1950)년 12월 21부터 23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당면과업**》에서 반년동안의 전쟁행정을 분석총화하시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당면한 정치, 경제, 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또한 적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들에서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을 시급히 정비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당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선전선동사업과 대중단체지도사업,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며 적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자들을 정확히 처리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과 일부 타락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국제적지원에만 매달리려 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쟁승리를 쟁취할데 대

하여 강조하였다.

이 회의후 분파적행동을 하면서 당의 결정, 지시관철을 태공한자들과 규률을 문란시킨자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강한 당적책임을 추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당, 국가, 군대안에서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강화되였다.

당은 특히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0(1951)년 1월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에게 군사분야에서 발로되고있는 교조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당의 군사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대로 인민군부대들은 주체40(1951)년 1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38° 선계선에서 적들에 대한 끊임없는 소모전과 여러차례의 강력한 반타격전, 배후교란작전을 적극적으로 벌려 적들에게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었다.

이 과정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높이 발휘되였다.

한계렬영웅은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주지 말라고 하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의 고지》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으며 강호영영웅은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들속으로 뛰여들었다. 안영애영웅은 한몸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는 마지막순간에 자기의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것은 당원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훌륭한 모범으로서 인민군용사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안 영 애(1929. 1. 29.－1951. 5. 10.)

주체40(1951)년 5월 부대군의소가 주둔하고있는 곳에 적기들이 날아들어 환자병동에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자 안영애는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들을 업어날랐다.

그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많은 중환자들을 업어다 안전한 곳에 대피시켰다. 마지막 부상병을 업고 환자병동에서 나올 때 적기 한대가 내리꽂히며 기총사격을 하였다.

안영애는 자기 몸으로 환자의 몸을 덮음으로써 부상병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최후의 순간에 그는 몸에 지녔던 당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하여줄것을 부탁하였다.

사후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그리고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 창작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당원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당은 전시 당대렬을 확대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전시환경에 맞게 당대렬을 확대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당장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당시 당조직사업에서는 좌경적편향이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당의 책임적인 자리에 있던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당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수많은 당원들에게 책벌을 적용하는것으로 대치하였으며 여러가지 구실로 당장성사업을 하지 않아 전쟁승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렬에 들어올수 없게 하였다.

주체40(195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당장성사업과 당규률문제취급에서 나타나고있는 좌경적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11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장성사업에서 나타난 관문주의적편향을 없애고 대중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성격에 맞게 당대렬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전쟁행정에서 검열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과 군인, 근로인테리들을 당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살로 되였던 입당나이를 18살로 낮춘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부당하게 적용된 책벌은 취소하고 지나치게 준 책벌은 시정하며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당원들의 책벌은 빨리 벗겨주는 동시에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이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전당적투쟁을 벌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은 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한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가운데서 수십만명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이였다. 인민군대에서만도 짧은 기간에 14만여명의 우수한 군인들이 당대렬에 들어섰다.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년후 당은 100만명이상의 당원들을 가진 위력한 대중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당은 당원들에게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적용했던 책벌을 취소하거나 고쳐주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열성을 발휘한 당원들의 책벌은 벗겨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락원기계제작소(당시) 주철직장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였다.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의 신포향을 비롯한 당원들은 전시생산에서 당원의 본분을 다하며 전후복구건설도 자기들의 힘으로 해낼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룡천군 북중면 하장리 당세포총회에 참석하시여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하고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 어려운 때일수록 대중의 앞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휴식시간에 한 녀성당원이 풍금을

포화속에서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작성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주체40(1951)년 1월 설계일군들을 부르시여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놓아야 전쟁이 끝나면 인차 복구건설사업에 착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도시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들을 밝혀주시였다.

그해 5월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설계초안이 작성되였고 앞으로의 복구건설방향이 명확히 규정되게 되였다.

이에 따라 전후 평양시의 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그를 수록한 기록영화가 각지에서 상영되였다.

조선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새롭게 일떠설 아름답고 웅장화려한 평양의 모습을 그려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원쑤들과의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치고 다른 녀성당원들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것을 보시고 자신께서는 비록 전쟁시기이지만 여기 당원들이 락천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모습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신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전쟁의 어려운 시련앞에서도 비관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곤난을 뚫고나가는것이 오늘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이며 이런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1952년 12월 미제는 대규모적인《신공세》를 기도하면서 조선전선에 막대한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새로 투입하였다.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결정적인 대책이 요구되였다.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원쑤와의 결전에 준비시켜야 하였다.

당시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비하여 질적강화는 아직 뒤떨어져있었다.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준엄하고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반혁명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종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주체41(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후 당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자유주의적경향과 종파주의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전원회의는 당원들의 당조직규률을 강화하고 당생활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관철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예리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사상사업분야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혁명의 실천적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후 각급 당조직들에서 종파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반당적, 비당적현상에 대한 강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였다.

전당적인 사상투쟁과정에 당원들의 당성이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였다.

특히 당내에 숨어있던 박헌영, 리승엽도당의 반당반혁명적죄행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였다. 박헌영도당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았다.

이리하여 악질적인 종파분자, 혁명의 배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당의 통일단결이 한층 강화되였다.

당사상사업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당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조국애의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전시환경에 맞게 당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갔다.

당은 이렇게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군대와 인민을 미제의《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미제의 《신공세》기도가 로골화되고있던 주체42(1953)년 1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이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기 위한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며 만일 적들이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한다면 그를 격파하고 미제침략자들의 운명을 서산락일로 만들어 조국강토에서 종국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결사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모두다 적을 섬멸하는 결사전에로!》,《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자!》라는 전투적구호가 인민군대 방어진지의 갱도들에 새겨지고 농촌 리들의 선전실들에서도 울려나왔다.

조선정전협정

조선정전협정은 주체42(1953)년 7월에 체결되였다.

협정에서 정전쌍방은 정전후 3개월안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적대적군사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조건문제,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문제, 조선경외로부터 군사인원의 증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 정전감독기구창설문제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였으며 그 리행감시기구인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신공세》의 서막으로 되는 미제의 정형고지공격작전을 짓부셔버렸다.

궁지에 빠진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은 《신공세》기도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신공세》기도가 총파산되자 미제는 1953년 4월 정전담판장에 다시 나타나 1년 6개월이나 끌어오던 포로송환문제에서 조선측의 정당한 제의를 접수하고야말았다.

인민군부대들은 주체42(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세차례에 걸쳐 강력한 타격전을 벌려 343㎢의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군사분계선을 남쪽으로 더 밀어놓았다.

이렇게 되자 더는 전쟁을 계속할수 없다는것을 인정한 미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미제는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적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주고 미제의 침략적야망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였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전쟁기간 미제침략군 40만 5 000여명을 포함하여 156만 7 000여명의 유생력량을 살상포로하고 1만 2 200여

대의 비행기, 560여척의 각종 함선, 3 250여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 000여대의 자동차, 7 690여문의 각종 포를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로획파괴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2.3배나 되는것이였다.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조선로동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존엄,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또한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미제의《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의 기치를 들고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조선의 전쟁피해는 참으로 혹심하였다. 8 7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37만정보의 농토가 피해를 입었으며 60여만호의 살림집과 5 000여개의 학교, 1 000여개의 병원과 진료소, 670여개소의 과학연구기관과 도서관, 260여개의 극장과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미제는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인민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아무리 파괴가 심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다.

주체42(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혹심한 파괴로 전반적인 부문을 동시에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복구건설을 세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첫째단계는 반년내지 1년동안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전반적으로 복구건설할수 있는 준비사업과 정리사업을 하는 단계이고 둘째단계는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전쟁전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이며 셋째단계는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단계였다.

전원회의는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규정하였다.

전원회의후 조선로동당은 당대렬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은 주체42(1953)년 8월에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고 군대와 인민이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우도록 불러일으켰다.

당의 부름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복구건설준비를 다그쳤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전후 40일만에 첫 쇠물을 뽑아냈고 철도부문 로동자들은 정전후 며칠사이에 중요간선들에서의 운행을 보장하였다. 농민들은 파괴된 농경지와 관개수리시설들을 복구정비하면서 영농사업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의 과업은 주체42(1953)년 말까지 5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당은 주체43(1954)년부터 3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3개년계획을 추진시키면서 특히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시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기계에서 밥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반대해나섰으며 모든것을 당면한 소비에만 돌릴것을 주장하였다.

당은 종파분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갔다.

당은 중공업공장들을 복구개건확장하며 신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특히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각종 기계생산기지들을 구색이 맞게 꾸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큰 규모의 방직공장들을 복구신설하며 일용품공장, 식료가공공장들을 도처에 건설하도록 하였다.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갔다.

당은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2(1953)년 10월 당중앙위원회

《평양속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1월에 평양시건설부문 모범로동자협의회를 마련하시고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주체47(1958)년 2월에 진행된 평양시건설일군열성자회의참가자들은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1만 7 000세대분의 살림집을 건설하기로 결의하여 나섰으며 그것은 그후 다시 2만세대결의목표로 갱신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조립식건설방법을《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을 방해한 반당종파분자들과 투쟁하며 부재생산을 공업화하였으며 건설의 조립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부재 한개를 조립하는데 10분이상 걸리던것이 2～3분으로 단축되고 기중기 한대가 한꺼번에 3～4개의 부재를 달아 올리는 새 방법이 창조되였으며 미장공 한사람이 한세대의 미장을 하루에 끝내는 혁신이 일어났다.

건설자들은 14～16분동안에 주택을 한세대씩 조립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주체47(1958)년 한해동안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2만 839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평양속도》가 창조되였다.

정치위원회에서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드는것을 군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당은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군사학교들에서 현대전도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은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현대화를 적극 다그쳐나갔다.

그리하여 전후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게 되였다.

4월테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완성

4월테제 발표

전후 조선로동당앞에는 전반적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명확히 밝히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의 총적임무를 옳게 규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특히 이 시기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전국적범위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혁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혁명의 전진을 극력 방해하여나서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3(1954)년 12월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

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를 작성완성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테제에서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밝히시였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되였으며 북과 남에서 혁명이 같은 보조로 발전할수 없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섰으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강점밑에서 제국주의적, 봉건적착취와 억압에 계속 시달리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은 전국적견지에서 볼 때 의연히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적과업을 수행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였다.

전국적범위에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통일과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선언하시였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에서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개조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것을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테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새로운 기술, 문화일군들을 양성할데 대한 문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 문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주권을 더한층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강철같은 간부군대로 단련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4월테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다그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농업협동화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것이였다.

여기에서도 농업협동화가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섰다.

농업협동화는 전후에 와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농촌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로력도, 농기구와 부림소도 부족한 형편에서 이전처럼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없고 어렵게 된 식량문제도, 농민생활문제도 풀수 없었던것이다.

한편 농업협동화를 말아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었다.

농민들은 새 조국건설과 전쟁의 불길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품앗이반, 소겨리반을 뭇고 일하는 과정에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짓는것이 우월하다는것을 깨닫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방침의 본질적내용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생활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들도 정확히 밝히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것이였다.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는것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였다.

당은 종파분자들의 온갖 궤변을 짓부시며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에 기초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당은 경험적단계를 설정하고 협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빈농들과 농촌의 핵심들로 먼저 매개 군에 3～4개의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처음으로 맞으시는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고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중화군 삼정리를 찾으시였다.

리안의 여러 협동조합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합형편이며 농사일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양어장자리도 친히 잡아주시고 과수원자리도 정해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삼정리내 관리일군들, 조합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

고 협동조합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후 삼정리내 협동조합들은 농업협동화의 경험적단계에서 본보기단위로 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은 첫해 농사에서부터 그 우월성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주체43(1954)년에 협동경리에서 알곡단위당 수확고는 개인농경리에서보다 10～50% 더 높았으며 현금수입은 2～7배나 되였다.

주체43(1954)년 1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에서 거둔 승리를 총화하고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중농들이 협동조합에 광범히 들어왔으며 농업협동화운동은 대중적단계로 발전하게 되였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간첩, 파괴암해분자들, 청산된 지주들과 악질부농들은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반동요언들을 퍼뜨렸고 조합의 부림소를 죽이고 농기구를 파괴하였으며 종자와 식량창고에 불을 질렀다. 지어 조합의 간부들과 핵심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당은 전체 농민대중을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셔버렸다.

농업협동화운동은 주체46(1957)년에 이르러 완성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때까지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계층은 주로 부유한 농민들,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를 하는 도시주변의 농민들, 심히 널려있는 산간지대농민들이였다.

당은 조합에 들지 않은 농민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들모두를 조합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개인상공업과 련결되여있는 도시주변의 농민들은 희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에 들게 하였으며 산간지대농민들은 작업반을 지대적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살림집들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세워 협동조합에 들어올수 있게 하였다. 부농에 대하여서는 협동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착취행위를 그만두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사람들은 조합에 받아들이는 방침을 계속 관철하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47(1958)년 8월 조선에서는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농업협동화가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농촌에서는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농민들은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로 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

당은 부분적으로 실시하여오던 수공업의 협동화를 전후에 전면적으로 밀고나가는 한편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 주목을 돌리였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에서 민족자본의 발전은 심히 억제당하고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보잘것 없었다. 게다가 전쟁피해로 하여 전후 민족자본가들의 처지는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의 처지와 별로 차이가 없게 되였다.

한편 전후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원료, 자재를 얻기가 힘들게 되였고 사회주의적상업이 빨리 발전하기때문에 상품을 팔기도 어렵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 협동화의 길만이 살아나갈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당은 이로부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

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자신의 의사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들게 하였으며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갔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리하여 조선에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조선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생산력발전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기술적개조에 앞서 진행되였으며 전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된데 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게 되였다.

주체확립에서의 결정적전환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세우는데서 기본방해로 되는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을 섬기고 따르면서 무엇이나 큰 나라들이 하라는대로 하려고 하였다.

당은 이로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

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당의 투쟁에서 전환적계기로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4(1955)년 12월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과업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자면 조선의 력사와 지리, 풍속을 잘 알며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선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혁명의 원리와 원칙을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애국주의와 국제주의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뿐아니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수 없으며 국제주의에 충실치 못한 사람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게 충실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연설은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사상사업은 물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를 세우는데서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가 있은 후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주체45(1956)년 1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려고 책동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당은 모든 교양망들에서 당문헌과 당력사,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선전선동사업을 조선의것을 위주로 하여 진행하며 그 형식과 방법도 조선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각급 교육기관들과 당양성기관들에서 교육강령과 교재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만들며 학생들을 주체사상과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사상분야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앞세우면서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며 국방에서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사회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은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첫 시기부터 사람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전후 조선에서는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추진되고있었으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이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그때까지도 개인주의, 리기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깊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당은 이미 제1차 당대표자회에서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을 당정치사업의 총적방향의 하나로 규정한데 이어 주체47(1958)년 8월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강습회에서 집단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은 특히 주체47(1958)년 11월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사회주의제도수립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주의교양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해나가며 긍정적인것은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당은 이에 맞게 사회주의교양에서 긍정감화교양방법을 널리 적용하였다.

사회주의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모두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생활기풍이 사회에 지배하게 되였다.

흥남비료공장(당시)병원에서는 몸의 48%에 3도화상을 당한 한 어린 소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원 의사, 간호원들, 실습중에 있던 대학생들과 입원환자들까지 앞을 다투어 자기 피와 살을 바쳐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행이 발휘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자강도의 한 녀교원은 걷지 못하는 소녀를 2년이상이나 업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고 다리도 고쳐주어 대지를 활보하게 하여 만사람을 격동시켰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이 날에날마다 꽃펴나 사회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당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

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착취와 압박을 직접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에 들어서고있었다. 이러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잇게 하자면 그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야 하였다.

더우기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일부 사람들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지 못한 결과 짧은 기간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인민군대가 길주, 명천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느니, 《독립군》이나 《의렬단》, 《독립동맹》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당의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2월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하신 연설과 그해 5월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 계승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심문제의 하나로 틀어쥐였다.

주체47(1958)년말부터 주체48(1959)년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모든 기관, 기업소, 학교, 농업협동조합들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들이 꾸려지고 그를 거점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였다.

당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을 중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6월 평양제1중학교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보천보와 삼지연일대의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심으로써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전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당은 주체48(1959)년 봄에 항일혁명투쟁전적지답사단을 중국동북지방에 파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력사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발굴, 수집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혁명가요집》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고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노래들을 널리 창작보급하도록 하였다.

결과 당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투쟁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갔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체45(1956)년 4월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이후 사회주의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대회로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자랑찬 투쟁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당과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대회에 참가한 쏘련공산당대표는 조선로동당에서도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제기된 《평화적공존》과 《개인미신》문제를 토의할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대회에서 단호한 반격을 받았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철저히 립각하여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았다.

대회는 당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고 인민경제부문별 발전방향과 과업들을 확정하였다.

대회는 공화국북반부에 창설된 인민민주주의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며 인민정권의 정치적기초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안을 담은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도당과 반당종파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숙청한 당중앙위원회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반종파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당의 사상적 및 조직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할것을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하였다.

당대회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당건설과 당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와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당 제3차대회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반대하여나섰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5(1956)년 6월과 7월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신 기회를 리용하여 반당반혁명적음모를 꾸미였다. 이자들은 앞으로 열리게 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혼란이 조성된 기회를 리용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고 꾀하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하여 방문일정을 앞당겨 조국으로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인 주체45(1956)년 8월 예정대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섰다.

종파분자들은 당이 《쏘련공산당 20차대회를 이단시한다》느니,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간부정책이 틀렸다》느니 하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공공연히 걸고들었다. 이자들은 저들의 반당적행위가 회의참가자들로부터 강한 타격을 받게 되자 《당내 민주주의》와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발악적으로 도전해나섰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원회의참가자들은 종파분자들의 책

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이자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은 파탄되였다.

조선로동당은 8월전원회의후 전당적으로 종파를 반대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려 종파잔당과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였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종파우두머리들은 된타격을 받고 제거되였지만 아직 잔여분자들은 정체를 숨기고 쏠라닥거리고있었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에서 청산된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벌리였다.

당은 반종파투쟁을 철저히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당조직들과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집중지도를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반종파투쟁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강서군(당시) 태성리의 한 할머니는《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종파주의의 마지막잔당을 짓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주체47(1958)년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는 큰 의의를 가지였다.

대표자회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총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력사적경험은 종파는 매우 집요하고 위험하며 종파를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들이 적들과 야합하는데로 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자라나면 종파가 되고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당성이 마비되여 종파에 리용당하게 되며 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쓸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온갖 기회주의가 침습하게 된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주었다.

대표자회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종파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표자회는 반종파투쟁에서 당중앙을 옹호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당의 령도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당중앙을 헐뜯고 당중앙의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주되는 화살을 돌렸다. 따라서 전당이 당중앙을 옹호보위하는것은 반종파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였다.

대표자회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파의 온상인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는데 주되는 힘이 집중되고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특히 주체48(1959)년 3월에 진행된 함경북도당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당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주체47(1958)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군대안

에서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는 전변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여나섰으며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로부터 떼여내려고 책동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숙청되고 그자들의 사상여독이 청산되게 되였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

당은 종파를 청산하고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려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정신력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당은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던 시기 혁명과 건설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체45(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반종파투쟁에서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로 되였다.

전원회의후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이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데 대하여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열렬한 호소에 호응하여 강철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리하여 년산 6만t 공칭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천리마대진군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과 농어촌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을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전국의 근로자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거세차게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속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는 이렇게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가까운 몇해안에 농촌수리화를 기본적으로 끝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편지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분쇄하고 모두 다 천리마를 타고 과감히 진군하자!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 일체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앙양, 더 높은 고조를 위하여 혁명적열정을 발휘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시기 당이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부문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10월부터 금속공업과 기계공업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이 부문의 발전방향과 생산의 앙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들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30만～40만t 능력의 새로운 용광로를 일떠세웠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30여일만에 《천리마》호 뜨락또르를, 40일만에 《승리-58》호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8m타닝반, 3 000t 프레스, 《천리마》호 굴착기, 《락원 1호》대형양수기, 《붉은별 58》불도젤 등이 련이어 생산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벌어져 한해동안에 계획외에 1만 3 000여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9월전원회의후 관개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불과 반년동안에 37만 7 000정보의 관개면적이 새로 늘어났고 기양관개, 어지돈관개를 비롯한 큰 규모의 관개공사들이 련이어 완공되였다.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이룩되는 과정에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8(1959)년 2월 강선제강소(당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위력한 대중운동이였다.

강선제강소와 평양제사공장(당시), 승호구역 리현리(당시)에서 인간개조사업의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널리 일반화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점차 작업반의 범위를 벗어나 직장, 공장범위로 확대되였으며 공업뿐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벌어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더욱 앙양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힘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주체47(1958)년 9월에 당중앙위원회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붉은 편지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면서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자체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경성에 있는 한 아마공장의 로동자들은 5대의 낡은 절삭기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공무직장에서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자체로 만들고 그것으로 방직기계를 만들어 공장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공작기계를 가지고있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다.

인민경제전반을 포괄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한해동안에 계획외에 1만 3천여대의 공작기계가 생산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그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마침내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조선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리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이 일어나고있던 새로운 환경은 그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당사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히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주체의 당사업리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7(1958)년 3월 도, 시, 군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앞에서 하신 연설《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이듬해 2월 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하신 연설《당사업방법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리론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힌것이다.

또한 당사업의 내용을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두 측면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힌것이다.

당내부사업은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당조직사업에서 기본은 간부사업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 간부대렬을 순결하게 꾸리며 당조직들의 사업을 늘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켜 전당의 사상의지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주체적인 당사업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대하여 밝힌것이다.

당사업방법의 기본요구는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사업에서는 대중의 기수가 되고 생활에서는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한 능숙한 당일군이 되자면 정치사상수준이 높고 당사업원

칙들을 잘 알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은 주체의 당사업리론에 기초하여 대중령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5개년계획기간에 조선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천리마의 대고조속에 혁명과 건설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다. 사회주의근로자로 된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도 대단히 높아졌다.

당시 조성된 새 환경에 비추어볼 때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의연히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고 일군들의 지도능력도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8(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당시)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민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리당사업과 협동조합관리운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과 걸린 문제들을 상세히 파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에 대한 군의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에 심중한 결함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의 의도를 깨닫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자각적으로 수행하도록 일깨워주시였으며 그들의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도들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청산리당총회와 강서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총화하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정확히 운영하며 당, 국가 및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

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였다.

그이께서는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총련의 결성, 《민족의 대이동》

이 시기 당은 해외교포운동 특히 재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해외교포문제는 지난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조선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 류랑하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이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주체40(1951)년 1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나오게 되였다.

민전결성후 이 단체의 지도권을 장악한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

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로선상에서 근본적인 오유를 범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1(1952)년 12월 2일 재일동포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주체44(1955)년 5월 24일 민전이 해산되고 5월 25일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였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교포조직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사회주의조국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망국노의 수난을 겪어온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자나깨나 바라던 절절한 소원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게 되였다.

주체48(1959)년 12월 드디어 조국에로 돌아오는 동포들을 태운 첫 귀국선이 일본의 니이가다항을 떠나 바다를 건너 조국의 청진항에 도착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흐루쑈브는 1956년 2월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제도간의 《평화적공존》과 《평화적경쟁》,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등 《세가지평화론》을 내놓고 《평화적공존》을 쏘련대외정책의 총로선으로 선포하였다.

흐루쑈브는 대회에서 또한 《개인미신》과 그 후과를 청산한다는 구실밑에 쓰딸린을 중상공격하면서 그가 이룩한 업적을 모독하고 수령으로서의 그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었다.

조선로동당은 대외활동분야에서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주체46(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저들의 기회주의적로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그것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공동로선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나 코민포름(수개국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 같은것을 다시 내올데 대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통일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원칙적인 투쟁과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회의에서는 혁명적원칙을 담은 선언을 채택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이 회의에 뒤이어 열린 세계 64개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에서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주체49(1960)년 11월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발생한 로선상 의견상이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가 열리게 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회의에 앞서 저들이 작성한 회의성명초안을 각국 당들에 보냈다.

성명초안에는 남을 걸고들면서 어느 일방을 중심으로 단결할데 대한 부당한 요구가 반영되여있었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회의에서 수정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 대국주의적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조선로동당의 원칙적인 투쟁과 그것을 지지하여나선 혁명적당들의 노력에 의하여 분렬의 위기는 일단 수습되고 기본상 혁명적내용들로 일관된 회의성명이 채택되게 되였다.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난관을 조성하고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공세가 더욱 심해지고있던 어려운 시기에 조선로동당이 국제관계분야에서 벌린 자주적인 대외활동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공헌으로 되였다.

사회주의를 향하여

70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완수되여 사회주의제도가 전일적으로 확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축성됨으로써 조선로동당활동의 사회경제적조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가 청산되고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50(1961)년 9월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대표들과 함께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사회주의나라 당들을 비롯한 32개의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3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기간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투쟁과업과 함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당건설,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7개년(1961—1967)계획의 과업들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요구를 다시금 밝히고 남조선에서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독자적인 혁명적당을 시급히 조직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에 대한 결정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온갖 종파를 청산하고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

1960년대 전반기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더욱 긴장해졌다.

마침내 까리브해위기가 발생하였다.

미제는 1962년 10월 수많은 군대와 비행기, 군함들을 동원하여 꾸바를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꾸바에 있는 쏘련의 미싸일과 비행기들을 철수하라고 강요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이에 굴복하여 꾸바에 있던 미싸일들과 비행기들을 철수시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까리브해위기후 미제는 침략의 예봉을 아시아에 돌리였으며 특히 남조선에 수많은 군대와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주체51(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 관철

당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자위적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인민군대의 간부화를 위하여 모든 군인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나갔다.

그리고 위력한 자립적국방공업기지에 의거하여 모든 군인들을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현대적인 군사과

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인민군대의 현대화를 추진시키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2(1963)년 2월 최전연의 대덕산초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내놓으신《일당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붉은기중대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준비는 더욱 다그쳐졌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로농적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훈련을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 군사지식과 전법들을 익히도록 하였다. 온 나라에 튼튼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며 대공방어와 해안방어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와 함께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넣어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물자예비를 넉넉히 조성하며 모든 공장들이 전시환경속에서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다 군사에 복무할수 있게 준비시켜나갔다.

당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면서 경제건설도 계속 다그쳐나갔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이 테제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먼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농촌문제의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농촌문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에서 계속해야 할 혁명의 중심내용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 그리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방향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과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방조를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수행방도를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에 대한 통일적지도의 단위와 거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해명하시고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거점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당은 농촌테제관철을 위하여 농촌을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농촌당조직들을 잘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강화하고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주체53(196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여 농업현물세를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

까지 년차별로 완전히 페지하며 농장의 기본건설과 문화후생시설, 살림집건설을 국가부담으로 하고 중요한 설비와 농기계들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게 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 어떤 가물이나 큰물피해도 이겨낼수 있는 수리화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게 하였다. 그리고 농촌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4(1965)년 5월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분조관리제를 내오게 하시고 그것을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에 일반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분조관리제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관리방법이다.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군을 잘 꾸리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이렇게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되여 농촌건설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에 모심으로써 자기 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후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였으며 주체53(1964)년 6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이무렵 당사업과 활동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중심에 놓이지 못하였으며 지어 개별적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당정책집행이 중도반단되는것과 같은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에서 당사업과 당활동에서의 주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은 전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이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사업의 주선에 관한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정확히 전달하는 체계를 세우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 집행정형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이 사업을 전통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전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제때에 전달침투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우며 집행정형을 총화하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

1960년대 중엽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보다 악랄하게 벌리면서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었다.

한편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저마다 사회주의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은 나라의 대내외활동방침을 밝히기 위한 당대표자회를 열기로 하였다.

주체55(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먼저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표자회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명백히 밝히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면서 여기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지키며 미제와 투쟁하지 않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다같이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토의하였다.

대표자회는 먼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

철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리게 되는 조건에서 7개년계획수행을 3년간 연장할것을 결정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도 토의하였다.

당은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국제혁명력량의 단결과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당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주기로 하고 군사 및 경제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데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일치한 행동을 보장하도록 적극 활동하였으며 꾸바인민에게 사심없는 국제주의적지원을 주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에도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고 에짚트와 수리아에 물질적 및 군사적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당은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삼고 여기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4(1965)년 4월에 진행하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은 큰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방문기간 이 나라 지도자들과 새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의견을 나누시였으며 사회과학원에서 하신 강의를 통하여 조선혁명과 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알려주시였다.

당은 캄보쟈, 먄마, 에짚트, 알제리, 기네, 말리 등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었다.

조선로동당이 벌린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로 되였다.

김일성화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의 식물학자 씨. 엘 분트가 고심어린 노력끝에 육종한 란과계통의 아름다운 꽃이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초대대통령 수카르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류의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주체54(1965)년 4월 이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시였다.

오늘 **김일성**화는 조선뿐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재배되고있다.

김일성화는 지난 기간 세계적인 원예박람회들에서 많은 최우수상, 금상들을 수여받았다.

전 환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수정주의가 침습해들어오자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해나섰으며 당안에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을 퍼뜨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방해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과 그 반혁명적본질을 제때에 밝혀내고 저지시키시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이자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도록 경종을 울리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주체56(1967)년 4월 중순부터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회의에서는 당안에 숨어 양봉음위하면서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분야에 끼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회의과정에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결론을 얻으시고 당적사상체계란 명실

공히 당의 유일사상체계이며 그것은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체계를 의미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56(1967)년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당과 혁명앞에 저지른 죄행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

전원회의는 회의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당사상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 당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으로 벌어졌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것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빼는것이였다.

당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반혁명적행위에 대한 통보자료를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그자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

한 투쟁에서 행정적인 방법을 경계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을 적용하며 주동과 피동을 명백히 구분하고 비록 과오를 범하였다하더라도 반당분자들과 조직적으로 결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나갔다.

그런데 당시 인민군대의 책임적자리에 앉아있던 반당군벌관료주의자들은 군대를 특수화하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당의 군사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관철을 저애하였다.

주체58(1969)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군벌관료주의자들의 반당반혁명적죄행과 그 엄중성을 심각히 폭로비판하고 이자들을 당과 군대대렬에서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룩되고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공업화실현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때 미제는《보복》을 떠벌이면서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조선을 위협하였지만 결국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고조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갔다.

이 과정에 7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푸에블로》호사건

주체57(1968)년 1월 23일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7.6mile되는 수역(N 39° 17.4′, E 127° 46.9′)에까지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1 000여t급)와 거기에 탔던 80여명의 선원들을 사로잡았다.

미제는《푸에블로》호가《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군사적위협으로 조선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방대한 륙해공군침략무력을 조선동해에 집결시키고 조선을 위협해나섰다.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혁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적들을 일격에 쳐물리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단호한 립장과 위력앞에 미제는 드디여 굴복하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였다.

미국정부는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주체59(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 그이께서는 총결기간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력사적승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6개년(1971년—1976년)계획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6개년계획을 내놓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새롭게 천명하였다.

대회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으며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였다.

대회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적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쳐부실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출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대회는 로동자,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대회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밝히였다.

대회는 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싸워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사회주의공업화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과시한 단결의 대회였다.

3대혁명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있은 후 당은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0(1971)년 2월 어느 한 공작기

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희천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다음해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희천에서 타오른 봉화는 구성과 만경대를 비롯한 각지의 기계공장들에 퍼져갔다.

이러한 때인 주체60(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작기계대수와 그 품종을 더욱 늘이는것을 비롯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61(1972)년 4월 15일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갔다.

당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고리를 생산공정의 자동화에서 찾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황해제철소(당시)를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잘 꾸리며 그 경험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를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황해제철소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려졌으며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그 경험이 일반화되였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여갔다.

당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0(1971)년 11월 뜨락또르공장개건확장공사장에 나가시여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공장건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금성뜨락또르공장(당시)이 일떠서 뜨락또르생산능력을 크게 늘이였다.

이 시기 자동차생산기지가 현대화되고 각종 농기계생산기지도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지도에 의하여 청산리가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려지고 그 성과와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당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식료혁명과 가구혁명을 일으켜 주식물과 부식물가공을 공업화하고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비롯한 가구들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농촌의 수도화를 다그치며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그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렸다.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나가는 과정에 어렵고 힘든 로동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갔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하였다.

당시 3대혁명수행에서는 부족점이 없지 않았다. 일부 공장들에서는 기술혁명은 하지 않고 농촌로력을 뽑아 로력자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공장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였고 농업생산도 지장을 받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서는 규모가 커지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경제건설을 원만히 지도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3대혁명을 수행하자면 그들을 잘 도와주어 당의 요구대로 일을 잘해나갈수 있게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가을 당조직들에서 선발된 일군들과 대학생들로 지도소조를 무어 평양과 사리원의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 파견된 지도소조들의 활동은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당의 핵심들과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을 동원하는것이 적절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62(1973) 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중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3대혁명소조는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과학기술일군들, 청년지식인들로 구성되였다.

당은 지도대상에 맞게 3대혁명소조의 규모를 정하고 소조원들을 그 능력과 기술수준, 전공에 맞게 해당 단위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가 파견된 직후인 주체62(1973)년 2월과 3월에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당시)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과 남포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62(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방침의 정당성과 실천적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3대혁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을 계속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3대혁명소조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대렬을 정비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시였으며 3대혁명소조사업을 당중앙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당은 이처럼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을 확립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전개됨에 따라 3대혁명은 더욱 적극화되게 되였다.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당은 당사업 특히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개선강화해나가는데 힘을 넣었다.

당은 낡은 학습방법을 없애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을 전당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주체62(1973)년 6월에 중앙예술단체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되였으며 10월말—11월초에는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가 조직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문답식학습방법이 학습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방법을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며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

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우월한 방법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 시기 새롭게 창조하고 일반화하신 당사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에 따라 주체62(1973)년 6월 재령, 은률, 태탄광산에 당, 경제, 출판보도일군,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경제선동대가 파견되여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벌리였다.

이 과정에 항일유격대의 대중정치선동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경제선동경험이 창조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으며 선동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체계와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였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는 첫 공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배낭을 지고 아래에 내려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은 일군들이 아래에 지장없이 내려갈수 있게 조건을 보장해주었으며 당기구체계를 개편하여 일군들의 직제와 분담을 바로잡아주었다.

항일유격대식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사업은 낡은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날을 따라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웰남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파탄되고있었다. 미국에서는 반전운동이 고조되고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였다.

미국은 저들이 처한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평화전략》에서 찾고 《랭전》으로부터 《평화》에로, 《대결》로부터 《대화》와《공존》에로의 정책전환을 표방하여나섰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은 인민들의 강력한 반파쑈민주항전으로 하여 겪고있는 심각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나마 《평화》와 《협상》의 간판을 들고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추이에 맞게 주체60(1971)년 8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60(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단체사이의 예비회담이 열리였다. 이것을 실머리로 하여 11월부터는 쌍방고위급정치회담을 위한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마련되였으며 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주체61(1972)년 5월초에 첫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과 하신 담화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에 맞으며 조선인민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에도 부합되는 정당한 통일강령이였다.

그해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은 북과 남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것을 온 민족앞에 공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첫날부터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공동성명에 기대를 걸지 말라》고 하였으며 외세의존과 남북대결, 민족분렬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에 《유신체제》를 조작하고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7.4북남공동성명

평양과 서울에서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북남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북남공동성명은 주체61(1972)년 7월 4일에 발표되였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북남공동성명에는 쌍방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것과 그에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북남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할데 대한 문제,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으며 북남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이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의《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영구분렬책동에 대처하여 주체62(1973)년 6월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당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대민족회의소집을 통일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대민족회의나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거듭 제기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하여 주체62(1973)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밑에 조선문제를 상정토의하였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여갔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의 위업을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여 당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령도자를 내세우고 받들어나가야 당이 자기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이 시기 조선로동당에서는 새 세대 령도자로서의 뛰여난 자질과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혁명앞에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10년간 지도원, 과장,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사업하시는 과정에 당과 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늘 현지에 나가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넓은 포옹력과 뜨거운 동지애로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실력은 당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당의 령도자이시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게 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면서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실것을 절절히 청원하는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은 송가들을 지어불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돌격대가 되자!》는 구호를 추켜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갔다.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사업체계가 세워졌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인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당 수뇌부에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울것을 결정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을 민족적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고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전당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업체계와 강한 질서가 세워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수뇌부에 높이 추대하고 그이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다져지고 령도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당의 위업계승에서 가장 근본적문제인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자주와 독립, 사회주

의를 위한 조선혁명의 전과정에 구현되여 현실로 증명되였으며 그 과학성과 진리성,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 선포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절감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식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라고,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원리와 주체의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또한 령도방법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하였으며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모든 주객관적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여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본질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

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에는 당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방도가 밝혀져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일찌기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시작된 **김일성**주의화 과정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였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한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킨 정치적사변이였다.

전당 **김일성**주의화

당은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본열쇠로 내세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3(1974)년 7월초부터 8월초까지 평양에서 한달동안에 걸쳐 조선로동당 제4차 조직일군대회가 진행되게 되였다. 대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참신한 당사업실무와 방법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주체63(1974)년 8월 2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위에 높이 모신 당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와 밀접히 결합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이 강화되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진행해나가는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였다.

당은 당조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조직사업에서 큰 힘을 넣은 문제의 하나는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는것이였다.

전당을 간부화한다는것은 모든 일군들을 한급 높은 일군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말한다.

전당의 간부화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일군대렬과 당대렬이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기초축성사업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은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사명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개선하여나갔다.

당사상교양사업에서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교양사업을 심화시켰다.

당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당선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상사업을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모든 당일군들이 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조직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늘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웠으며 아래단위의 사업실태와 사람들을 료해파악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 일해나갔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였다.

당은 주체65(1976)년을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바로잡는 해로 정하고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렸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게 되였다.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면모가 일신되고 당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군 **김일성**주의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중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인민군대를 믿고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야 하며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1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은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는 혁명적구호밑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해나가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이 돌려졌다. 전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주체68(1979)년 12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당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철저히 갖추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은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대렬을 잘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당은 이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

다운 혁명전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5(1976)년 1월에 제시하신《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에서《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였으며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힘있게 벌리였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업방법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주체66(1977)년 11월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를 계기로 인민군대의 정치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도록 하였으며 주체68(1979)년 2월 조선인민군 군단(군종, 병종), 사(려)단정치부 선전선동부장회의 및 강습을 통하여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에서 형식주의와 도식주의, 행정화의 낡은 틀을 철저히 극복하고 항일유격대식방법을 구현하여 모든 선전과 선동을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닌 참다운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전군 **김일성**주의화위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1970년대 중엽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단계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은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요구가 집중되여있다.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밑에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당은 혁명사적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주체65(1976)년 5월에는 혁명사적자료발굴정리사업에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혁명사적자료에 대한 발굴, 수집, 고증 및 연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해나갔다.

이와 함께 혁명사적자료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혁명사적을 발굴수집정리하는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당의 혁명력사를 립증하는 자료들이 수많이 발굴정리되였다.

당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은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여 1년 4개월만에 훌륭히 완공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5(1976)년 7월초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사적들이 집중되여있는 삼지연일대의 혁명전적지건설을 발기하시고 그를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그리고 대기념비형성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삼지연혁명전적지가 웅장하게 건설되여 백두산과 삼지연일대의 넓은 지역이 혁명전통교양의 대

삼지연혁명전적지

량강도 삼지연군에 있는 삼지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주체28(1939)년 5월 21일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던 길에 잠시 휴식하시면서 조국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의의깊은 혁명전적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삼지연못가일대는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전변되였다.

삼지연못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각군상과 봉화탑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적대기념비가 일떠섰으며 그 주위에는 삼지연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표식비 등이 세워졌다.

삼지연혁명전적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삼지연못가에서 잠시 휴식하시면서 대원들을 교양하신 장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녀성대원들이 머리를 감던 곳, 혜산과 무산방면 차단조가 배치되였던 곳,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한 《갑무경비도로》 등이 있다.

삼지연혁명전적지에는 백두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근로자각, 대학생각, 소년단각, 답사자회관 등이 훌륭히 꾸려졌다.

전당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5(197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옳게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년대순),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 회상기들과 각종 경험자료, 《항일무장투쟁사》를 비롯한

배움의 천리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뜻을 새기시고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혼자몸으로 중국의 장백현 8도구에서 평양의 만경대까지 오신 력사적인 천여리의 로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2(1923)년 3월 16일 아침 부모님과 동생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8도구를 떠나 압록강을 건느신 다음 조국땅 포평에 도착하시였으며 월탄을 지나 험한 오가산령을 넘으시고 화평, 흑수를 거쳐 3월 19일 저녁에는 강계에 이르시여 8도구에 계시는 아버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고 전보를 치시였다.

3월 21일 다시 길을 떠나신 그이께서는 성간(당시 별하), 전천, 고인을 거쳐 명문고개를 넘고 청운, 희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도착하시여 기차를 타시고 신안주를 거쳐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아버님께 두번째 전보를 치시고 3월 29일 만경대에 이르시였다.

압록강을 건너 포평에서부터 만경대에 이르는 기나긴 로정에서 그이께서는 일제에게 짓밟히고 뜯기우는 조국의 눈물겨운 참상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였다.

도서들이 출판되고 혁명전통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여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신문, 방송 등 모든 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 및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주체63(1974)년에 첫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이 조직된데 이어 주체64(1975)년에 1만여명의 큰 규모로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이, 그해 8월부터는 혁명의 천리길에 대한 국가정기답사가 진행되였다.

광복의 천리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만경대로부터 팔도구에 이르는 천여리의 력사적로정이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찾는 투쟁에 나설것을 굳게 마음 다지시고 주체14(1925)년 1월 22일 만경대를 떠나시여 8도구에로의 천리길에 다시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를 떠나신지 열사흘만에 량강도 김형직군(당시 평안북도 후창군) 포평땅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눈덮인 압록강기슭에 서시여 아픈 마음을 금치 못하시며 조국산천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은 내 비록 비통한 마음으로 조국을 떠나지만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너의 품에 돌아오리라고 마음속으로 엄숙히 맹세를 다지시였다.

그러시고는 언제부터인가 이 강을 건느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압록강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걸음을 옮기시여 2월 3일 8도구에 도착하시였다.

주체64(1975)년부터 왕재산혁명사적지를 기본으로 함경북도일대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대한 국가정기답사로정이 새로 설정되였다.

주체64(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워 모든 사업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는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세우며 주체64(1975)년부터 문답식학습방법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여나갔다.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항일유격대식기풍이 나래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적극 추진되고있던 현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주체62(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부장협의회에서 3대혁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릴것을 결심하시고 주체64(1975)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다.

이에 따라 12월초에 검덕광산(당시)과 청산협동농장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한달 남짓한 사이에 공업, 농업, 교통운수, 과학, 교육, 보건 등 모든 부문에 타번져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도 이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기로 한 당의 의도와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광범한 군중을 이 운동에 궐기시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이 운동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가 돌려졌다.

그리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혁신자들을 소개선전하고 사회적으로 내세워주며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널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더욱 조직화되고 보다 높은 수준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당적지도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큰 힘을 돌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원회의후 사회주의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이 시작된 첫해인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70일전투를 벌리기로 하였다.

당은 70일전투승리의 기본열쇠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데서 찾고 각급 당조직들이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면밀한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70일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긴장하던 주체63(1974)년의 년간계획이 넘쳐 수행되고 6개년계획을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당은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농업생산에서의 전환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으며 그 과정에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주체농법에 대한 강습을 비롯하여 농업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주체농법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진행되였다.

《록색혁명》이 추진되고 농작물의 원종기지와 채종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이 구현되고 과학적인 시비체계가 확립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6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6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수행되였으며 알곡고지는 2년이나 앞당겨 점령되였다. 계획기간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소득은 1.8배로 늘어났으며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였다.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1978년—1984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이였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이것을 당사업의 총적방침으로 내세웠다.

주체67(1978)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6차전원

회의는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민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주체67(1978)년 5월말부터 100일전투가 조직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제2차 7개년계획의 중요과업수행에서 전변이 일어났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안팎의 정세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를 튼튼히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당은 이 구호를 들었다.

당은 이를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자원, 기술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의 전략적구호가 철저히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경제토대는 더욱 강화되여갔다.

당은 주체64(1975)년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으로 장성시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66(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교육테제에서는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당은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당은 주체예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에 처음으로 예술영화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모신 혁명영화창조사업을 발기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훌륭히 완성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11월 연극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연극혁명이 일어나 주체67(1978)년 8월 혁명연극《성황당》이 창조되였으며《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성황당》식혁명연극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초에 연극혁명을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혁명연극《성황당》,《혈분만국회》,《딸에게서 온 편지》,《3인 1당》,《경축대회》를《성황당》식혁명연극으로 형상하는 사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은 내용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형식은 생활적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은 새로운 다장면구성형식을 받아들여 고정격식화된 구성의 틀에 생활내용을 맞춘것이 아니라 생활내용에 따라 장면을 설정하고 총체적인 구성을 세웠다.

또한 연극에 흐름식립체무대와 음악을 받아들여 형상적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였다.

당은 전반적무상치료제에 기초한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주체63(1974)년 4월 주체의학에 기본을 두고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한편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추세에 맞게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주체69(198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여 나라의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였다.

당은 체육사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어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웠으며 전문체육과 국방체육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벌리고 주체적인 전술체계를 세우며 체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1980년대에 이르러 조선혁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1970년대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주체69(1980)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당대회와 당창건 3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남조선의 통일혁명당(당시)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 세계 118개 나라의 177개 당 및 정부대표단과 대표들, 각계인사들과 조선주재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5차대회이후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며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였다.

또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확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망목표와 인민경제의 부문별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국가를 창립하자는것이 새로운 통일방안의 기본내용이였다.

대회에서는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할데 대하여 밝히고 련방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민생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내놓았다.

대회에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밝히고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았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되였다.

당 제6차대회는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음을 내외에 시위한 뜻깊은 대회였다.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당과 혁명대오는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한다.

1980년대에 조선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주체사상이 널리 보급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체71(1982)년 3월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구성체계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을 기본구성체계로 하고있다.

로작에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정식화하고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주체의 세계관확립에서 가지는 의의를 명확히 밝히였다.

로작에서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로작은 또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로작에서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켜오신 당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킨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새로운 사상과 리론들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은 그의 최고뇌수이고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당은 그의 중추를 이룬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리해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관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자면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므로 혁명관은 혁명적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결국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우려면 혁명적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다같이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한 신념으로 되자면 인생관화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의 토양우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져 풍만한 열매를 맺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였다.

당을 영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당의 기초를 쌓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그것은 당의 위업이 계승되는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조선로동당은 이미 주체63(1974)년 2월 당의 기초를 만년초석으로 다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적극 실현해왔다.

당은 일군대렬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는것을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대렬을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로 꾸리였다.

당일군양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이 돌려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0(1981)년 6월에 진행된 전국당일군양성기관 교원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정수분자로 키우는것을 당일군양성기관의 기본임무로,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은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당에 빠짐없이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웠다.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을 당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모든 당원들이 당 제6차대회에서 채택된 새 규약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당생활을 규약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였다.

당의 기초를 쌓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부터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0(1981)년 3월 조선로동당 제4차사상일군대회에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여야 가식과 변심을 모르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고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자면 수령의 은덕에 대한 교양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원리교양, 덕성교양, 충실성의 산모범을 통한 교양을 옳게 결합시켜 실속있게 진행하며 모든 교양

사업을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위업수행에서의 수령과 그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업적, 은덕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켰다.

주체72(1983)년 8월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도록을 새로 편찬하고 그에 맞게 사상리론학습실을 꾸렸으며 당일군양성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와 고전적 문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였다. 영화실효투쟁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신념과 의리로 뿌리내리게 되였으며 당의 기초는 더욱 굳건하고 공고하게 다져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당의 기초축성사업은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다.

당의 혁명적성격 고수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우기 이 시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사회의 향도

적력량인 당을 변질시키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며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길로 나가고있던 조건에서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발전의 요구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주체71(1982)년 10월에 발표하신 로작《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본질적특징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하시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에 대한 이 정식화는 당의 혁명적성격에 대한 전일적인 체계화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갖추어야 할 면모와 본질적특징을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지침이였다.

당은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5(1986)년 7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조직들은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등 당의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주체사상교양이 심화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

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되여갔다.

당은 당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힘의 원천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통일단결에 있으며 당건설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당의 통일단결, 일심단결의 특징과 위력을 밝히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마련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주변 나라들에서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붕괴되여가고있을 때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일심단결로 더욱 강화되였다.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주체74(1985)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훌륭히 개건확장되였으며 이듬해 9월에는 애국렬사릉이 꾸려졌다.

특히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밀영들과 혁명적구호문헌들을 새로 발굴하여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심장부였던 백두산밀영이 발굴되고 원상대로 꾸려졌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력사를 실물을 통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당은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백두산밀영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 꾸리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중심지로 리용하신 비밀근거지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이다.

백두산밀영은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산기슭 소백수골안의 수림속에 자리잡고있다.

백두산밀영에는 이 일대의 봉우리들가운데서 주봉을 이루는 해발높이 1 798m의 정일봉이 거연히 솟아있다.

백두산밀영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5(1936)년 9월 조국에서의 첫 밤을 보내신 사령부천막자리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그이께서 계시던 백두산밀영 사령부귀틀집이 있다. 사령부귀틀집과 이웃한 백두산밀영의 정일봉기슭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소박한 귀틀집이 있다.

소백수골에는 경위대원실, 재봉소, 비서처, 차단소, 대원실들이 있다.

백두산밀영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친필하신《광명성찬가》를 높이 3.7m, 너비 12m의 화강석에 정중히 새긴 송시비가 세워져있다.

백두산밀영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일심단결 강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2(198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현시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4(1985)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일심단결이라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다. 이로부터 당은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당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이에 따라 근로단체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고 근로단체들이 대중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능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당건설의 력사적경험 집대성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심화발전시키고 당의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데서 귀중한 혁명적재부였다.

당의 이 귀중한 업적과 경험을 과학적으로 집대성하고 그것으로 일군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당일군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5(1986)년 5월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강의록《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력사적경험을 총화하시고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기본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라고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이 당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첫째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며, 둘째로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며, 셋째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건설과 활동에서 이룩된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오는 과정에 이룩한 투쟁경험도 총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내세우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투쟁경험에 대하여서도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한 당의 령도경험을 집대성하시였다.

그리고 주체의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당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시면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의 원칙적요구와 기본내용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을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밝히시였다.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옳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며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은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당건설대강이다.

당의 령군체계 전면적확립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5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특히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리고 군인들속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당은 인민군대를 주체의 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을 군건설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전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주체70(1981)년 2월에 군대안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직선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군인들속에서 당의 령도에 대한 원리교양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켰으며 특히 충실성의 산모범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체71(1982)년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중요하게 토의된것은 인민군대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

요한것은 인민군대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체계를 바로 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당적으로만 지도하고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직접 령도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시대는 군사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인것만큼 현시대의 발전추세와 군사사업에 정통하고 무비의 담력과 천재적예지, 세련된 령군술을 겸비한 **김정일**동지의 령군체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연한 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군정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일치하게 인민군대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후 인민군대전반사업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당중앙위원회안에 해당한 기구를 새로 내왔으며 군대안의 보고체계를 비롯한 사업체계도 새롭게 세웠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지휘관들과 군인들속에서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전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령군체계가 더욱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

당은 인민군대의 위력을 높이며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지휘성원들의 군사기술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강습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고 군사과학토론회, 전술연구토론회

등 각종 연구토론회가 조직되였으며 군사도서출판사업에 관심이 돌려졌다.

전투훈련을 주체성있게 진행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전투훈련에서 형식성과 간략화를 없애고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는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군종, 병종의 무장장비들을 경량화하고 그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었다.

당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돌렸다.

당은 인민군대안에 군사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군에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렇게 1980년대에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80년대속도로!

당 제6차대회후 경제건설분야에서 당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이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0(1981)년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전체 인민을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으며 경축행사들이 전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당은 혁명적열의로 앙양된 대중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6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회의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발단으로 되였다.

주체71(1982)년 7월과 8월에 김책제철소(당시)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장원들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해 나섰다.

당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밑에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전국청년열성자회의,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가 진행되였으며 80년대속도창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가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당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이끌면서 검덕광업종합기업소(당시) 제3선광장건설을 발기하고 그를 통하여 80년대속도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제3선광장건설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이 펼쳐지고 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방대한 공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본보기가 마련되였다.

당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갔다.

이에 따라 이미 있는 화학공장들이 개건확장되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일떠섰다.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이 돌려져 1만t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력은 서해갑문건설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났다.

서해갑문건설은 20리 날바다를 막아 언제를 쌓고 여러개의 갑문과 수십개의 수문을 일떠세워야 하는 세계굴지의 갑문건설공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해갑문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0(1981)년 5월 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면서 립체전, 전격전으로 공사를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서해갑문건설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한층 강화되였다.

당은 주체74(1985)년과 주체75(1986)년을 조절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5(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제3차 7개년(1987년—1993년)계획의 전망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주체76(1987)년 7월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대회를 소집하여 전체 인민을 새 전망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여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결정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구호를 제시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받들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200일전투의 주타격전선이 기본건설로 규정되고 동력기지, 금속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 광복거리, 북부철길 등 중요대상건설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당은 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와 전국영웅대회에서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두차례의 200일전투를 통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당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틀어쥐였다.

당은 알곡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는 한편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수산물가공기지를 확장하고 바다가양식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었다.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였다. 이와 함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전군중적으로 벌어져 인민소비품의 생산량과 품종이 빨리 늘어났다.

당은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상점들, 종합식당과 전문식당들,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들을 일떠세웠으며 이 부문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창광거리를 건설하고 그를 본보기로 문수거리와 천리마거리(2단계), 광복거리 등 현대적인 주택거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웠다.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서도 살림집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밀고나가면서 교육과 과학을 비롯한

서해갑문

서해갑문은 대동강하류 끌살뿌리－피도－광량만사이의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바다갑문으로서 세계적규모의 수리구조물이다.

서해갑문에는 5만t급까지의 배들이 드나들수 있는 3개의 갑실이 있다.

갑실우의 회전다리에는 기차길과 자동차길, 걸음길이 있다. 갑문언제는 대동강물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는 수십여개의 수문을 설치한 기본무넘이언제, 보조무넘이언제와 수천여m 비무넘이언제로 구성되여있다. 비무넘이언제에는 3개의 현대화된 고기길들이기 못을 가진 고기길이 있다.

서해갑문으로 하여 대동강하류부에는 수십억㎥의 물을 저수할수 있는 대인공호수가 생겨 났다.

갑문의 남포시 령남리쪽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친필하신 갑문현판과 령남문주가 있다. 갑문의 은률군쪽에는 갑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조각으로 형상한 송관문주가 있다.

문화건설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

주체69(1980)년 11월에 열린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제안이 발기된데 이어 주체70(1981)년 8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듬해 2월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100인련합회의소집을 발기하고 그 참가대상자명단을 발표하였다.

당은 해외민주인사들속에서 련공, 련북기운이 높아지는데 맞게 북과 해외동포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주체70(1981)년 11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들간의 제1차대화가, 다음해 12월에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제2차대화가 진행되여 북과 해외동포사이의 련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체73(1984)년 12월에는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의 대화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무어지게 되였다.

당은 해외동포들과의 련합을 강화하는 한편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3(1984)년 9월 남조

선에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기자 그들에게 혈육의 정이 담긴 구호물자를 보내도록 동포애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쌀 5만석과 세멘트 10만t, 천 50만m, 많은 량의 의약품들이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전달되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구호물자전달을 계기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였다.

주체74(1985)년에 북남사이에 경제회담, 적십자회담이 여러차례에 걸쳐 열리고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북남사이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였다.

당은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는 환경속에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한 5개항목의 방안, 북남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는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대회에서는 다음해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로 조국통일을 위한 8.15범민족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당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군축을 실현하여 평화를 수호하며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3(1984)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에서 조선과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3자회담제안은 조선과 미국사이에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었다.

당과 공화국정부는 3자회담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면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당과 공화국정부는 주체74(1985)년 4월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평화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당은 15만여명의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평화적건설에 참가시키였다.

주체76(1987)년 7월에는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내놓았으며 12월말까지 10만명의 인민군장병들을 일방적으로 제대시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진출시키였다.

조국통일기운이 앙양되는 가운데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렇게 1980년대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북과 남, 해외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게 되였다.

자주화된 새 세계를 위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 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였으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주체71(1982)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웠다.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내놓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에 중국과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자주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줄이고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당은 1980년대에도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삼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시종일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9월과 주체73(1984)년 11월, 주체76(1987)년 5월에 중국을, 주체73(1984)년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이전 쏘련과 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였다.

방문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나라들의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과 진행하신 회담과 담화들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2(1983)년 6월 중국을 방문하시여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의 여러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형편을 서로 통보하고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당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대외활동방침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당은 주체63(1974)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쁠럭불가담운동에 정식 가입할데 대한 립장을 밝히고 이듬해 8월에 이 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되였다.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리념과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은 1980년대에 쁠럭불가담운동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주체70(1981)년 8월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 주체72(1983)년 9월 제1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 주체76(1987)년 6월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 등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당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새 사회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많은 나라들에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파견되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의료봉사사업을 성의껏 도와주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큰 힘을 넣어 관개공사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축성과 식량 및 농업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과 공화국정부는 1980년대에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농업과학연구소들과 농업시험장들을 꾸려주고 공업과 건설, 문화분야에서 사심없는 원조와 협조를 주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주체70(1981)년 3월 일본사회당대표단과 동북아시아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체75(1986)년 9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은 반제,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국제회의들과 축전, 정치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주체72(1983)년 7월에 평양에서 열린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는 118개 나라와 17개 국제기구에서 온 169개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축전의 기본리념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78(1989)년 7월에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 180개 나라의 1 245개 청년 및 학생조직과 64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대표 1만 6 000여명, 90개 나라에서 온 470여명의 명예손님들의 참가밑에 축전력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되였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대히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여

반사회주의적궤변을 짓부시고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이르러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에 부딪쳤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정책을 들고나와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사회주의리념을 외곡하고 부정하면서 자본주의복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이러한 사태를 놓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었으며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배신행위를 변호하였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가자면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명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79(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0(1991)년 5월 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심오히 해명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독특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조선인민의 생명이라면 주체사상은 조선의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근본적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회라는데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이 단순히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사회주의이다. 이 일심단결은 조선의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자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그 교훈을 명백히 밝혀야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못한데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원인은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나라 당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있었다.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제

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주체강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기본고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당이 약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거세되면 사회주의위업의 주체가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되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위업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이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였다.

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당을 꾸릴데 대한 당건설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과 수령, 혁명에 충실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가 투철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간부대렬에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새 세대 일군들이 많아지는 실정을 고려하여 그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집권당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허용하는것은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것과 같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는것을 당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주체79(1990)년 1월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당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한편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당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9(1990)년 11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킬 신념의 맹세를 담아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뜻깊은 친필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그후 이 세포를 충성의 당세포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은 이렇게 발단되였다.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을 전당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주체80(1991)년 5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1차 세포비서대회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충성의 당세포창조사업을 당조직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전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은 주체83(1994)년 3월말에 조선로동당 제2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여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 보내신 축하문에서 당세포의 5대과업을 밝혀주시였다.

당세포의 5대과업은 첫째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둘째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셋째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넷째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다섯째로, 조국의 안

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는것이였다.

제2차 당세포비서대회후 충성의 당세포들이 수많이 자라나 사회주의를 지키는 튼튼한 초석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는 바로 일심단결이라고 하시면서 당조직들이 당사업의 중심을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두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은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사업은 전체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불멸의 송시를 지으시였다. 그리고 그후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유자녀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에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될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반사회주의공세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은 혁명렬사유가족들, 전사자 및 피살자가족들로 하여금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주체81(1992)년 10월에 전국렬사가족대회를, 이듬해 7월에는 제1차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하여 그들모두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당은 로동자, 농민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면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여러 나라들의 교훈에 비추어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주체81(1992)년 12월 조선지식인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에서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표시하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더우기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에 대한 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적지 않은 청년들이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말려들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데 나섰던 교훈은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를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0(1991)년 1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뜻깊은 날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 26일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주체82(1993)년 2월 평양에서는 사로청 제8차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첫 세대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

에 굳게 뭉쳐 투쟁한것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당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목숨바쳐 수호하고 빛내여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일심단결의 도덕적기초로 내세우고 온 사회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갔다.

당과 대중사이에 혈연적련계가 강화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시련도 맞받아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제의 핵소동분쇄

199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조선을 압살하기 위하여《핵의혹》이라는것을 들고나와 《특별사찰》과 《제재》에 대하여 떠들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제는 1993년 1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여기에 20여만의 침략무력과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계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을 가해나섰다.

조선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다.

조선로동당은 미제의 핵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주체82(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 제0034호《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였다.

준전시상태의 선포에 이어 당은 주체82(1993)년 3월 11일 당중

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정세와 차후대책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3월 12일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조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에게 가해진 타격이였다. 미제는 서둘러《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였으며 《특별사찰》소동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국제화》하려고 꾀하면서 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가려고 책동하였다.

당은 조선의《핵문제》는 조미회담을 통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주체82(1993)년 4월 외교부(당시)성명을 통하여 조선에서 핵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조미협상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으며 그 어떤《제재》도《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한 자위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이렇게 되여 조미회담이 시작되였다.

주체82(1993)년 6월 뉴욕에서 제1단계 조미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조선대표단은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하며 압살책동을 포기한다는 정치적공약을 받아내는데 기본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성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발표되였다. 뒤이어 7월에 진행된 제2단계 조미회담에서도 조선대표단은 뉴욕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원칙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불사용원칙을 재확인하며 조선의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제2단계 조미회담이후 미제는 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재사찰을 받아들이며 북남대화를 재개하여야 제3단계회담을 할수 있다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고 또다시 정치군사적압력을 가해왔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를 운운했다.

당은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갔다.

주체83(1994)년 1월말 미국이 조미회담을 하지 않겠다면 조선도 구태여 회담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한다면 그에 대응한 방도를 선택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담은 외교부(당시) 대변인성명이 발표되였다. 6월에는 미제에게 추종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부당한 주장을 담은《의장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에 대한《기구협조를 중단》한다는《제재결의》를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즉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미사이의 타협책을 찾기 위하여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조선에 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카터와의 접견석상에서 조미 두 나라사이의 신뢰조성이 핵문제해결에서 기본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조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조미회담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게 되였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제재》론의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조미회담장에 다시 나오게 되였다.

주체83(1994)년 8월부터 제네바에서 제3단계 조미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은 미국이 책임지고 조선에 2003년까지 총 200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며 조선의 흑연감속로동결에 따르는 보상으로 매해 50만t 의 중유를 제공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경제적제한조치들을 해소하는것을 포함하여 무역의 투자장벽을 완화하며 평양과

워싱톤에 련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것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가 밝혀졌다.

조미회담결속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담보하는 서한을 보내여왔다. 이것은 조미대결에서 이룩한 조선로동당 자주외교의 승리였으며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린 력사적인 승리였다.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세계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는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이 나라들과 맺었던 장기 또는 단기무역협정들이 헝클어지고 그 리행이 거의 중단되였으며 이미 진행되여오던 경제협조도 부진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한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경제적제재와 봉쇄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주체79(1990)년 1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경제적난국에 대처하여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고 경제규모를 줄이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것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당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인 중공업의 토대가 은을 내도록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살림집건설에 주되는 힘을 넣도록 하였다.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일부 조절하여 경공업부문에 돌리며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다.

주체79(1990)년 6월에는 전국경공업대회를 소집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서 전환이 이룩되도록 하였다.

당은 주체81(1992)년 5월 당중앙위원회 지시문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내려보내고 경공업혁명 당지도소조를 파견하였다.

당은 물문제를 푸는것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제기하고 이미 하고있던 서해안일대의 2 000리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여 나라의 관개체계를 더욱 완성하였다. 그리고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수준을 더 높이고 흙깔이전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며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어 알곡소출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위대한 **김일성**동지 탄생 80돐을 맞으며 평양시에 5만세대의 현대적살림집이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들에 수십만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섰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주체82(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을 밝히시면서 혁명적경제전략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경제전략은 주체83(1994)년부터 주체85(1996)년까지 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가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이였다. 혁명적경제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이였다.

당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구호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2월 전국농업대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6월에는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대성구역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리고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당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0(1991)년 10월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당면과업,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당은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문학예술은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시기 문학예술혁명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집대성하여 고전적로작들인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였다.

1990년대초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1부~7부)이 명작으로 창작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킬수 있었다.

당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조선민족의 5천년 력사와 문화를 실증해주는 유적유물의 발굴과 그 복구개건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고구려시조 동명왕과 고려태조 왕건왕의 릉을 비롯한 력사유적들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특히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확증하여주는 민족의 원시조가 밝혀지고 단군릉이 민족의 시조릉답게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사회생활전반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온 겨레의 열망은 1990년대에 이르러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주체79(1990)년 5월 90년대에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 5개방침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것,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것,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

성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당은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주체79(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해내외통일운동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가밑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79(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실무회담이 열리고 여기에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였다.

주체81(1992)년 8월에는 판문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이 결성되였다.

범민련과 범청학련이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3자련대, 련합을 실현하고 통일운동을 조직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되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높아가는 조건에서 북남간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발기에 의하여 주체79(1990)년 9월부터 북과 남의 총리들을 단장으로 하는 북남고위급회담이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이듬해 12월에 있은 제5차회담에서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3차례의 북남대표접촉을 거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서와 공동선언은 주체81(1992)년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통하여 그 발효가 온 세상에 공포되였다.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긴장완화에로 나가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주체82(1993)년에 들어서면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다시금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였다.

조선민족앞에는 동족끼리 대결하여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여 열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가 아니면 전민족이 단합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10대강령에서는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로 제시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단결의 근본원칙을 밝히였다. 그리고 일체 정쟁을 중지하며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데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데 대한 문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모든 재부를 보호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며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며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대단결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당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주체82(1993)년 10월부터 북남최고위급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진행되였다. 예비접촉에서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

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데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이 력사적인 문건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으로 되였다.

평 양 선 언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사회주의변절자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됨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였다.

조성된 사태하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공동으로 들고나갈 과학적인 투쟁강령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고전적로작《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의 혁명가들은 이 로작을 접하고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한 조선을 동경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공산당, 로동당을 비롯한 진보적정당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조선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평양에 온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 대표들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만이 인류가 지향하는 참다운 사회이며 조선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들은 쌍무적 및 다무적회담들을 열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며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충분히 토의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강령을 발표할것을 일치하게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 48명의 당수들을 비롯한 70개 정당대표들이 서명한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발표되게 되였다.

평양선언은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 참다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해줄수 있다는것을 확언하였다.

선언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관철해나갈데 대한 문제,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 모든 당들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 련대성의 뉴대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을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세계의 혁명적당들은 평양선언을《새로운 공산당선언》,《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문건》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에 련이어 서명하였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은 해마다 늘어나 주체101(2012)년에 와서는 289개에 이르렀다.

세계 혁명적당들과 혁명가들은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선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주체83(1994)년 7월 9일 낮 12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를 알리는《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온 나라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주체83(1994)년 7월 20일까지 10여일간에 걸친 애도기간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이 금수산의사당(당시) 조의식장과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모셔진 그이의 동상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7월 19일 200만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터치는 곡성이 하늘땅을 뒤덮는 가운데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20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되고 동시에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추도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조의행사들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애도기간 세계 166개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과 여러 조직들에서 조전을 보내여오고 화환을 진정하였으며 160여개 나라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였다. 애도기간 세계 120여개 나라에서 7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특집을 발간하고 200여개의 통신, 방송이 연 2 200여회에 걸쳐 특별방송으로 그이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대국상을 당한 후 세계정치계는 조선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며 어느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려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 활동을 지향시켜나갔다.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 그대로 잘 모시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당시)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리고 그이를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고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외국손님들은 세상에 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이런 성지는 없다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였으며 그이께서 제정하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하였다.

주체86(1997)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은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그이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의 제정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업적은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흐르게 되였다.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혁명앞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은 조선민족이 당한 대국상을 계기로 더욱 파렴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그리고 여러해째 계속된 혹심한 자연재해와 혁명대오안에 나타난 우연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혁명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미 1960년대말부터 실시하여오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준엄한 난국을 뚫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갈것을 결심하시였다.

당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웠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운다는것은 혁

명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대를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준비시키며 혁명군대가 사회주의위업전반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핵심부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로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실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공포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 구분대의 지휘부 및 전방지휘소들, 군사교육기관들, 최전연초소와 외진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부대로 만들며 인민군대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1월 인민군대앞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으며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에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맡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선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철한 투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자기 수령,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당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전당과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주체87(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심의채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기구체계를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 선군정치체계로 전환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8(1999)년 2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이후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총비서로, 국가주석으로 모실것을 절절히 념원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그처럼 뜨거운 추대열망을 자신에 대한 더없는 신임과 기대로 받아들이시면서도 이 사업을 여러해동안이나 미루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하시였다.

그럴수록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열망은 더욱 고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체86(1997)년 10월 8일 특별보도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체 당원들

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주체87(1998)년 9월 5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그것은 새 헌법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상설적인 최고주권 및 행정기관일뿐아니라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중추기관으로 된 조건에서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솔하는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추대되신것을 의미하였다.

군사강국건설

자위적혁명무력의 강화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긴장하였다.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었다.

당은 인민군군인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과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충실성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리수복, 김광철, 길영조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 등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켰다.

당은 전군에 드세찬 훈련열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지휘관, 참모부훈련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각급 지휘관들과 참모부일군들이 현대전의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임

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각 군종, 병종들의 실동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은 중대를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중대를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며 인민군대에서 일군들이 중대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도와주는것을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주체88(1999)년 2월에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가, 주체91(2002)년 10월에는 조선인민군 중대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은 인민군대가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선도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은 인민군대가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고 군대에서 창조된 군인문화의 본보기를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1(2002)년 5월 전민군사복무제를 실시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주체92(2003)년부터 전민군사복무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당은 주체91(2002)년 11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계기로 온 나라에 원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당은 전민무장화를 위하여 민간무력을 튼튼히 꾸리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전투동원준비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 나라의 요새화를 다그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웠다.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제시, 자위적핵억제력 마련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1(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 의하여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조건에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자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주체92(2003)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공동결정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이미 1990년대초에 온 나라의 CNC화를 구상하시면서 개발집단을 무어주시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국방공업부문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해 귀중한 자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군수공장에서 먼저 CNC화의 시범을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국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은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핵물리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95(2006)년 10월과 주체98(2009)년 5월 두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체99(2010)년 5월에는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제의 로골적인 핵선제공격위협과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에 이르던 시기에 100% 자체의 기술에 의거한 두차례의 핵시

조선에서의 첫 지하핵시험

력사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을 받아온 조선은 침략자들의 핵에는 핵으로 맞설 의지를 안고 투쟁하여 끌끌내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력사적인 이 사변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류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험과 핵융합반응에서의 완전한 성공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갈망해온 군대와 인민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를 주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한 민족적대경사였다.

핵시험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조선이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포하였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 강화

당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고수하는데서

사상리론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심오히 론증하시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사회주의리념과 사회주의제도자체에서 찾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궤변에 타격을 가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당은 전체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것이 자신의 인생관이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과 배짱이라고 하시였다.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이 가장 엄혹하였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켜내고 일대 앙양을 가져온 투철한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짐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난관극복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따라배워 실지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게 되였다.

당은 군민일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민일치란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의 밑뿌리를 이룬다.

당은 인민군대가 군민일치를 이룩하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군민일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각급 당조직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고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서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당은 정치사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혁명대오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난국을 뚫고

당은 이 시기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로 준엄한 경제적난국을 뚫고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농업,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을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추켜세우는 기본전선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인민군군인들은 당의 선군정치실

현의 기수, 돌격대가 되여 근로자들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전투장마다에서 격동적인 화선식정치사업과 실천적모범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이 어떤것인가를 사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나날에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원상복구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궤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혼란된 경제사업이 하나하나 바로잡혀나가게 되였다.

당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자강도를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자강도는 여러 면에서 다른 도들보다 어렵고 불리한 산간지대였으므로 이러한 조건에서 창조되는 본보기는 더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질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가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자강도인민들은 자기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산악처럼 일떠섰다. 그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들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정비보강하여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였다. 또한 자체로 원료와 자재를 해결하여 공장들을 돌렸고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도 풀었다. 모두가 떨쳐나서 공장, 기업소들과 거리와 마을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그곳 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그것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당은 주체87(1998)년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해로 정하고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구호를 발표하였으며 전

체 인민을 강행군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주체87(1998)년 3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성강의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데 대한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성강의 로동계급은 증산투쟁을 과감히 벌려 강철생산에서 련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성강의 봉화따라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들을 활성화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추진되고 중소형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감자농사에서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농사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축산업과 잠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였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며 특히 룡문대굴과 구월산, 정방산, 칠보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주체88(1999)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은《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혔다.

당은 조직정치사업의 총화력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펴 경제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는데 집중하였다.

당은 전국농업부문 열성자회의,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회의들을 소집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주체89(2000)년 7월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집중적인 선전공세도 벌렸다.

당은 주체92(2003)년 9월에는 선군시대영웅대회를 소집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떨칠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체90(2001)년 8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현대적기계설비를 만들어내는데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새 세기에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전당, 전민이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번지는속에 안변청년발전소(2단계), 태천5호, 3호발전소, 금진강발전소들이 완공되였으며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일떠섰다. 강원도에서 토지정리사업의 시범이 창조되고 그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봉건적토지구조가 남아있던 땅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금속, 기계, 철도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정상가동되고 다른 부문, 단위들에서도 생산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고속도로)가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개통되였다

당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전당과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12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체 인민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설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당의 부름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대고조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였다. 이에 화답하여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당은 지난 시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천만군민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건설전투를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련이어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전투를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여 높이 세운 현행생산계획도 넘쳐 수행되고 당과 대중과의 일심단결도 더 한층 강화되게 되였다.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공업부문전반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나라의 경제적토대가 보다 굳건해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전선으로 규정하시고 주체99(2010)년 1월 3일 새해의 첫 현

지지도로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여러차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단숨에》의 공격정신과 기상으로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동력기지건설을 단 3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며 공장을 CNC공작기계생산의 어머니공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시였다.

이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대형복합가공중심반을 비롯한 최첨단 CNC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냈다.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한 이 공장의 개척정신, 창조기풍으로 기계공업뿐만아니라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은 물론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들까지 CNC화를 실현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거듭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16년만에 비날론생산을 정상화하는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오게 하시였으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갈탄가스화 1계렬공사를 완공하여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현대적인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공장이 일떠섰고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으며 단천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렇게 주체101(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인 함남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단 천 항

원래 단천항건설은 매우 어려운 공사로써 조선을 강점하였던 일제가 하려다가 끝내 하지 못하였으며 선행공법으로 계산해도 빨라서 10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였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단천항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공사장을 련이어 찾으시여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수 있는 대책과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결사관철할 맹세를 다진 항만건설자들은 사품치는 파도를 이겨내며 수십m 깊이의 날바다에 근 2 000m에 달하는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를 1년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항만건설자들은 자체로 새로운 공법들을 연구도입하여 기존공법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건설에서 비약적인 속도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여 단천항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였다.

항에는 두개의 방파제와 대형짐배들을 댈수 있는 부두들, 종합사령실과 항사무실들이 있는 종합청사, 화물창고, 등대 등 현대적인 무역항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구비되여있다.

수백만t의 화물통과능력을 갖춘 단천항이 건설되여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유색금속과 마그네샤제품들을 유리한 수송조건으로 대량 수송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선군혁명위업계승문제의 해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당은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으며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

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당과 혁명발전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서고있던 주체99(2010)년 9월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둘째의정으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당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서와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새로 반영하고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전일체로서의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규제하고 당의 당면목적을 명백히 밝히였다.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당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영원히 모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셋째의정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

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령도자의 자질과 풍모를 원만히 갖추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것을 한결같이 념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모시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매혹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흠모의 마음을 담은 송가들을 지어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2010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명인 10명중의 한 성원으로 선정한것을 비롯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김정은**동지를 칭송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온 나라의 당조직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여러 계기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맹세를 담은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앞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사업전반을 맡아보는 공직에 추대할것을 절절히 념원하는 청원편지를 수많이 보내여왔다.

당대표자회가 열리기 하루전인 9월 2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군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이 발표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는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찬동속에 당과 군대와 인민들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선군의 원칙에서 빛나게 해결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것이였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립장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라고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4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첫째로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

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 둘째로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는것, 셋째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것, 넷째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다섯째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당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기초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주체87(1998)년 6월《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가 조직되였으며 이로 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민간급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보다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해 8월 15일 판문점에서는 북과 남, 해외대표들의 참가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이 열리였으며 이어 동포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듬해 8월에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대표들과 함께 범민련남측본부와《한총련》,《전국련합》,《민주로총》등 애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이 참가한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범민족통일대축전)가 성대히 열려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 련합이 강화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

온 겨레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 나라가 분렬되여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

급회담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행장에서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 14일에 김대중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단독회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민족이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와 통일방도에 대한 문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방문단교환문제, 북남대화문제 등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진지한 회담을 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15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북남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방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장기수문제의 해결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할데 대한 문제 등이 명기되여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일관된 북남관계발전의 리정표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나라가 분렬된지 5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였다.

당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후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주체96(2007)년 6월까지 북과 남사이에 수십차례의 북남상급회담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회담과 접촉들이 진행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주체96(2007)년 10월 또다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0월 4일에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과시하고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목표와 과업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되였으며 결과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남조선에서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초기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조선로동당은 반통일세력의 온갖 악랄한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경이적인 사변

주체 89(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조선의 북과 남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이 마련되였던것이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평양에 먼저 와있던 남측 성원들은《**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다!》라는 탄성을 올리며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영접은 장관급일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놀란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롯데호텔 2층에 있는 기자쎈터에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기 위해 남조선의 110여개 언론사와 외국의 170여개 언론사 1 27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 전광판을 주시하고있었다.

드디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현지실황이 중계되기 시작하였다.

전광화면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뜨겁게 상봉하시는 장면이 비쳐졌다.

기자들은 일시에 박수를 쳤다. 지어 눈물을 흘리는 기자들까지 있었다.

남조선과 서방의 언론들은 김대중의 평양도착보도를 전하면서 한결같이 기자들이 썼던 예측기사를 여지없이 뒤집어엎은 파격이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러한 파격은 회담시에도 일어났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대중사이의 첫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있다고, 김《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평양에 가겠다고 했고 **김정일**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무엇때문에 쾌히 받아들이였는가 하고 큰 의문을 가지고있다고, 우리는 2박 3일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사람들의 이 의문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이렇게 세상에 태여났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용단과 도량에 의해 온 세계가 확신하지 못하고있던 회담의 결실이 이루어져 세상을 놀래운 사실은 예상치 못한 파격이였다.

해외교포운동의 강화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반공화국책동의 일환으로 총련을 파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한편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3세대, 4세대들이 이 운동의 담당자로 등장하였으며 동포사회에서 상공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러한 실정은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공화국의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높이 받들고 대외선전과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총련은 새 세대들이 총련애국운동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였다.

총련은 3세대, 4세대들에 대한 교양에 기본을 두고 그들이 민족의 넋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교양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참다운 생활관, 인생관을 지니고 지난날 애국의 1세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해놓은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은 주체84(1995)년 9월《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를 결성하고 수많은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묶어세웠으며 11월에는 재일동포종교인들을 폭넓게 망라한《재일본조선종교인련합회》를 결성하였다

총련은 적들의 반총련책동에 맞서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동포대중이 주인이 되여 애국운동을 참신하게 조직하고 밀고나가는 흐름이 나날이 커갔으며 총련조직은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 해외교포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초에 발족된 재중조선공민총련합회가 주체87(1998)년 4월부터 재중조선인총련합회로 발전되였으며 주체86(1997)년 9월에는 국제고통련산하조직으로 원동고통련(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이 결성되였다.

이외에도 조선사람이 사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서 교포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해외교포운동이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되여나감으로써 총련을 비롯한 해외교포조직들이 보다 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되였으며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적애국운동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대외관계의 확대발전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미제는《핵문제》와《미싸일문제》를 내들고 추종세력을 발동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하였다.

당은 선행정권이 합의한 모든 공약을 다 뒤집어엎고 조선을《악의 축》으로 걸고들면서 대조선강경정책에 매달리는 호전적인 부쉬정권의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갔다.

주체92(2003)년 1월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에 관한 공화국정부성명이, 주체94(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보유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이 발표되였다.

주체95(2006)년 7월 인민군대의 미싸일발사훈련과 같은 해 10월과 주체98(2009)년 5월 두차례의 지하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의 련이은 초강경조치와 그것을 배경으로 한 대미외교공세는 미국의 강권책동과 제재압력소동에 타격을 주었다.

력사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매달려온 일본집권층은 새 세기에 들어와 대조선정책에서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일정부간 8차회담이 결렬된지 8년만인 주체89(2000)년 4월 평양에서 제9차회담이 재개되였으며 그것은 제10차, 제11차회담에로 이어지게 되였다.

주체91(2002)년 9월 일본총리가 평양을 공식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일본총리와 상봉하고 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회담에 이어 채택된 조일평양선언에서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

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협력해나갈것을 확인하였다.

그후 2004년 5월 또다시 평양에 찾아온 일본총리는 조일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과 조일평양선언이 조일관계개선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당은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9(2000)년 3월과 주체96(2007)년 3월, 주체97(2008)년 3월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자욱을 남기시였다. 그리고 주체89(2000)년 5월과 주체90(2001)년 1월, 주체93(2004)년 4월과 주체95(2006)년 1월, 주체99(2010)년 5월과 8월, 주체100(2011)년 5월과 8월에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을 두터이하시였다.

한편 주체90(2001)년 9월에 강택민주석이, 주체94(2005)년 10월에 호금도주석이, 주체98(2009)년 10월에 온가보총리가 조선을 공식방문하였다.

조로관계발전에서도 전환이 일어났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이 주체89(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쌍무관계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조로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고 뿌찐대통령과 여러차례의 회담을 하시였으며 조로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1(2002)년 8월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주체100(2011)년 8월에는 로씨야련방의 씨비리 및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또다시 진행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서유럽나라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주체89(2000)년 1월 서유럽나라들가운데서 처음으로 이딸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은데 이어 영국, 네데를란드, 뛰르끼예, 벨지끄, 에스빠냐, 도이췰란드, 룩셈부르그, 그리스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주체90(2001)년 5월에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5월 14일 유럽동맹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후 카나다, 브라질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당은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 아프리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을 높이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태양으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현지지도의 길에서 서거하시였다.

12월 19일 낮 12시 중대보도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져 온 나라가 비분에 잠기였다.

애도의 10여일간 연 2억 6 00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가슴을 치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조의를 표시하였다. 12월 28일 평양에서는 눈내리는 100여리 연도에 줄지어 늘어선 수백만 수도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곡성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으며 12월 29일에는 평양에서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되고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추도대회들이 진행되였다.

해외동포들과 남녘의 동포들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세계 190여개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의 조선대사관 조의방문, 조기게양을 비롯한 각종 조의행사들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12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친선 및 련대성조직대표들이 3 000여건의 조전을 보내여왔으며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 정당, 기관, 단체와 인사들이 경모의 마음이 어린 4 100여개의 화환과 꽃바구니들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과 **김일성**광장, 조선의 재외대표부들에 모신 그이의 태양상초상화에 진

정하였다. 애도기간 세계 150여개 나라와 지역의 1만여개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와 관련하여 련일 특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결정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하였다.

주체101(2012)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당은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였으며 그이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정하고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일군들에게 **김정은**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보게 되면 모든 일이 잘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일군들이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소집되였다. 대표자회에는 조선인민군당, 각 도당 정치국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명기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가 있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념원을 담아 일찌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

시며 군대와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주체101(2012)년 7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공동결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들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으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완벽하게 정식화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변함없이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당의 기본전략적목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고 영원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백년대계의 전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것을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시였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진시켜오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전략적로선이며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년대계의 전략이며 혁명승리의 근본방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본질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라는 고전적 명제를 제시하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 **김일성-김정일**주의혁명리론을 보다 발전풍부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라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특징, **김정일**애국주의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의 애국주의리론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김정일애국주의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실생활에서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각급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그이와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는데 기본을 두고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접수하면 즉시에 전달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철저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는 혁명적인 규률과 사업기풍을 강하게 세워나갔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과 국가, 인민앞에 책임지는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갔다.

조선로동당은 현대판종파를 청산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당과 온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던 시기에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세하려들면서 분파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나서는 위험천만한 반당반혁명적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은 현대판종파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이 과정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당은 현대판종파의 여독을 청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높이 모실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과시하는 회의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결사옹위할것을 결의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맹세모임이 주체102(2013)년 12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하며 그이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근로단체결의대회들이 진행되였다.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숙청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보시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였으며 대회준비와 진행의 전과정을 직접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가 만세식, 행사식이 아니라 지난 시기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당

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당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될수 있게 진행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 참석하시여 보고와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대회사업전반을 지도하시였으며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에는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과 당세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끝난 다음 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는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대회로 당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로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주체103(2014)년 2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며 당사상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혼연일체

당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을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하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5월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관점이 바로 서지 않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당은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신년사에서《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군들이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었다.

당조직들은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며 혁명임무수행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기 위한 사업을 편향없이 해나갔다.

당은 혁명가유자녀들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기둥, 핵심골간들로 키워나가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 설명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0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돐 경축대회를 마련해주시고 학원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한 《혁명가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여야 한다》를 보내시였다.

당은 전쟁로병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대표들을 초청하여 전승절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주체101(2012)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경축행사와 주체102(2013)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가 전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영웅조선의 기상을 시

위하는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당은 일심단결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와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여 온 나라 청년들과 소년단원들을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 앞날의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온 나라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갔다.

당은 인민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발양시켜 온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갔다.

당이 펼치는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인민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꽃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이 발현될 때마다 그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평양에서는 주체101(2012)년 6월초 소년단원들의 대경축행사가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선발된 2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6월 2일 경축행사에 참가할 소년단대표전원이 특별비행기와 특별렬차, 뻐스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표들은 귀빈대우를 받으며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6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축복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시였으며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뜻깊은 날을 맞으며 밤하늘에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축행사기간 생일을 맞는 260여명의 소년단대표들에게 생일상이 차례졌다.

에게 감사와 친필서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신문과 방송, TV로 널리 소개선전하여 그들의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수많은 단위들, 일군들과 당원들, 평범한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편지를 올리였고 회답친필을 받아안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화폭이 온 나라에 펼쳐졌다.

군력강화의 최전성기

당은 선군혁명로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1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걸어오신 선군의 길을 천만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드팀없이,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의지의 선언이였다.

당은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갔다.

당은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혁명적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확립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전군이《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여

결사옹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그리고 전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갔다.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은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전우부대로 꾸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선전호가에서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하는것을 군령도의 철칙으로 내세우시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선을 헤치시며 찾고 또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들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판문점, 까칠봉의 최전연초소길들,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비롯한 전선길마다에는 군력강화의 만단사연이 가슴뜨겁게 깃들어있다.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전군선전일군회의를 비롯한 전군적인 회합은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오중흡7련대의 고귀한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전우부대로 강화되여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당은 인민군대안에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전군이 언제나 격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정형을 알아보시고 전쟁은 언제 한다는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전군에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전투훈련과 싸움준비완성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군종, 병종, 전문병, 화력단위별 종합전술훈련, 련합협동훈련 등 각종 훈련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이 개선되고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모든 군인들이 펄펄나는 싸움군들로 준비되고있다.

당은 군민대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갔으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였다.

초정밀화된 위력한 첨단전투기술기재들이 개발완성된것을 비롯하여 강성국가의 보루인 자위적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당은 군사적위력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였다.

특히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제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와 날로 가증되는 군사적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단호한 자위적조치로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적들의 새전쟁도발책동에 실제적인 군사적대응초치들을 취해나갔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

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여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진로를 명시하였다.

이처럼 조선로동당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밑천과 열쇠를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다.

《여기에 왜 오십니까?》

주체101(2012)년 8월 17일 이른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7hP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풍랑을 헤치시며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찾아가시였을 때였다.

군무생활의 하루를 례사롭게 시작하며 전투훈련준비에 여념이 없던 군인들은 자그마한 목선에서 내리시는 그이를 놀라움속에 맞이하였다.

방어대의 군인들과 가족들은 저저마다 달려나와 그이께 말씀드렸다.

《여기에 왜 오십니까?》

《이 험한 곳에 왜 오십니까?》

그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과 달을 보내면서도 지척의 남측지역에서 화약냄새가 사라질새 없고 전쟁연습이 그치지 않고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에 그이를 절대로 모시면 안된다고 생각한 그들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날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내가 다른 인민군부대들에 찾아가면 군인들이 나를 보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는데 장재도와 무도방어대의 군인들은 여기에 왜 오십니까라고 하였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무들이 여기서 조국을 지키고있는데 최고사령관이 오지 않으면 되겠는가고 하니 그들은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군대와 인민이 피줄처럼 맺은 정은 이렇듯 진실하고 열렬한것이다.

강성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에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빠른 기간에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당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은 인민생활향상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당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이를 위하여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규정하고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혁신의 봉화를 앞장에서 추켜들고나가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였다.

당은 인민소비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특히 주체102(2013)년 3월 전국경공업대회를 소집하고 대회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도록 하였다.

당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 먹는물문제, 땔감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선차적인 관

심을 돌리였으며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시설들과 기지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도록 하였다.

당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빨리 추켜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조국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갔다.

당은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주체101(2012) 년 12월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것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특대사변이였으며 전인민적대경사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CNC 공작기계본체가공용어미기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주체101(2012)년 12월 조선은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나라의 산림자원분포정형과 자연재해정도, 예상알곡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관측위성으로서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100% 국산화된 조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광명성-3》호 2호기는 궤도경사각이 97.4° 인 태양동기극궤도위성으로서 첨단급에 속하는 인공지구위성이다.

인 복합가공중심반을 완성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수자화된 공장으로 전변된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과 같이 국산화가 실현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된 단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은정과학지구와 쑥섬에 첨단과학기술개발 및 보급기지, 과학기술전당이 꾸려지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게 될 경제개발구들이 건설되고있다.

건설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이 대비약의 불길로 타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에만도 수많은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등을 찾으시며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애국의 호소문을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10개의 스키주로들과 자연풍치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호텔을 포함한 마식령스키장을 최단기간내에 일떠세움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세포등판개척자들은 헌신적인 투쟁으로 5만여정보의 등판개간을 끝내고 수만정보의 풀판을 조성하여 세계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조선인민군 18호수산사업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였다.

인민군대는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몇년이 걸

려야 한다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문수물놀이장과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등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으로 솟아났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희한하게 일떠서고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이 일떠서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유기농법이 적극 도입되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여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꾸려졌다. 고산땅에 대청춘과원이 솟아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치였다. 황해남도의 수만정보의 농경지와 간석지논에 관개수를 충분히 대주게 될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앞장에 서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조선의 바다에서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하게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와 마을을 강성국가의 문명이 꽃피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합장강과 보통강일대가 선경으로 변모되고 수도에 펼쳐진 새 공원들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각지에 수백개의 공원, 유원지들이 새로 꾸려져 로동당시대의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였다. 현대적인 강성원, 봉화원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있다.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는 속에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

당은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조선을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모든 면에서 세계문명을 따라앞서자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의지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은 나라를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갔다.

당은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였다.

당은 보건과 문학예술, 체육을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나라에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되여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가장 우월한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란봉악단이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과시하며 총진군을 선도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주체101(201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고 2년간의 준비단계를 거쳐 주체103(2014)년 4월 1일부터는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서는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일반기초지식을 줌으로써 학생들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들로 키우는데 목적을 두었다.

새로운 의무교육제도가 세워짐으로써 학생들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폭넓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등교육의 내용과 질적수준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자라나는 새 세대 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전기간 교육을 주는 완전한 의무교육제이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인민적인 무료의무교육제이다.

고있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힘과 열정을 안고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들이 평양과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노래 《조국찬가》, 《내 심장의 목소리》, 《바다 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어》와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대진군을 추동하고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체육발전을 위한 투쟁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고 국제경기우승의 환희로 들끓었다. 미더운 체육인들은 지난 3년간 200여차의 국제경기들에서 40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존엄높은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였다.

× × ×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절대적이며 당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이며 불멸의 태양기 높이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조선의 대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 최후승리를 빛나게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조선을 이끌어 70년

집 필: 최수남, 박금순, 안영

편 집: 김준혁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104(2015)년 9월

ㄱ-55179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ISBN 978-9946-0-1277-3

조선 · 평양
주체104(2015)년